朝鮮日報 夕刊 十日(火)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緊張裏에開會된 聯盟總會 第一日(九日)經過

【電通주네브九日發】第十六回國際聯盟總會는 九日午前十時五十分(日本時間午後六時五十分)理事會議長기너스 알젠틴 司會下에 開會되엿다

出席國은 五十二個國으로 獨逸과 파라과이는 脫退通告의 效力이 아직 發生치안흐나 欠席하엿다 當日은 伊에紛爭에 關한 各國代表의 演說이 잇슴으로 傍聽席이나 新聞記者席은 滿員의 盛況으로 議場內는 開會前부터 異常한 緊張을 呈하엿다 먼저 기너스議長은 開會演說에 잇서 자르地方의 歸屬決定을 爲始하야 過去一個年에잇서 聯盟의 治績을回顧하고 軍縮事業에對하여는 今日까지 聯盟의 努力이 效果를 發揮치못한데 對하야 遺憾의 뜻을表하나 聯盟은 모든 困難을 克服하고 終局에잇서 凱歌를 奏하리라고 確信하는바이다 라고結論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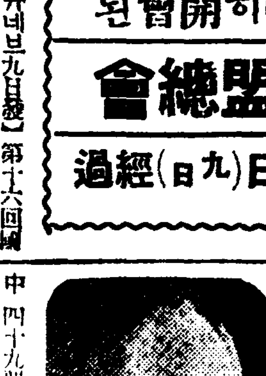
◇

다음에 기너스氏의演說後 議長選擧에 入하야 체코슬로바키아外相 베네쉬氏가當選 베네쉬氏가議長席에 着席하야 簡單한 就任人事를述하고 議事에入하엿스나 議題變更과 各種委員會의 組織을 行하엿슬뿐으로 豫想되든 伊에紛爭에關한 各國代表의 演說도업시 午後一時十五分(日本時間午後九時十五分)散會하엿다

베네쉬氏議長當選

【주네브九日發聯合】九日聯盟總會는 기너스假議長의 演說에 뒤이여 議長選擧에 入하엿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베네쉬外相에對立하야 議長候補에 올나잇든 愛蘭首相 데·발레라氏가 蒙讓하엿스므로 結局베네쉬氏의 獨舞臺로 投票總數五十二票中四十九票의 壓倒的多數로써 베네쉬氏가 當選되엿다 따라 베네쉬氏는 滿場拍手裏에 着席 簡單히 左와 如히 인사를 述하야 平和維持의 決意를 强調하엿다

目下 歐洲政局은 重大時期에 當面하여잇다 我等은 平和를 爲하야 새로운 進路를 發見하기에 努力하면 모든 困難을 克服하고 最後의 勝利를 收得하려고 생각한다


(寫眞은 베네쉬氏)

審議二時間餘에 散會하고再開

【주네브九日發聯合】九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開會된 聯盟總會는 會議二時間二十分後 午後一時十分 散會하엿다 그리고午後一時三十分(日本時間 十日午前一時三十分)부터 再開할터이다

政治委員會議長에 『데·발레라』氏 副議長六人도選擧

【電通주네브九日發】聯盟總會는 九日 午後五時三十分(日本時間 十日午前一時三十分)再開 六個의 總會副議長을 選擧하고 또 六名의 總會委員會議長을 選擧하고 第一日은散會하엿다 總會委員會中 모든 政治問題를 討議하기爲하야 가장 重要한 것이라고 指目되는 政治委員會議長에는 愛蘭首相데·발레라氏가 選出되엿는데 總會副議長은 左와 如히 選出되엿다 (投票總數五〇票)

佛國 四六票
英國 四一票
伊太利 四一票
西班牙 三一票
墨西哥 三〇票
白耳義 三〇票

그리고 蘇聯과 如한 大國이 副議長選擧에 失敗한것은 聯盟의 歷史가 始作된 以來初有의 일로 一九三四年 蘇聯이 聯盟에 加入한際 各聯盟國에 與한不快한 생각이 아직 사라지지안흔 證據라하야 興味를 끌고잇다

(寫眞은 데·발레라氏)

話題解說 아도와戰爭

一國家가 獨立을 維持하고 歷史的傳統을 持續하기는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니다 에디오피아와가티 그 國土의 거의 全部가 西歐列强의 植民地乃至 保護領으로 包圍되여 잇고 自國內에 風俗과 傳統이 다른 民族을 擁하고 잇는 國家는 더욱이 그러할것이다 古代에잇서 에디오피아는 國敎가 다르기때문에 回敎軍의 侵略이 자젓스며 中世에잇서서는 諸族間의 爭霸로 寧日이 稀無하엿든 것이며 近代에 이르러서는 西歐列强의 侵略이 한두번이 아니엿섯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難關을突破하고 今日까지 一國家로서의 歷史的 傳統을 維持하여 오는것은 自然的條件乃至 國際的 環境도 勿論 無視하는바 아니라 에디오피아民族 그 自體의 努力도 그 重要한 原因의 하나일것이다 더욱이 一八九六年 伊太利軍을 아도와에서 擊退한것은 에國史上에 卓出한業績이다

◇

아도와戰爭은 에디오피아로 하여금 今日에 에디오피아를 만들게한 메네릭時代에 勃發한事件으로 그原因은 伊太利가 욱시알리(一八八九年)條約에 依하야 에디오피아에 對한 保護權을 要求한데서 發端되엿다 一八九六年 伊太利가 右要求를 에國에提出하게 되자 메네릭王은 크게 激憤하야 十二萬의 精兵을 에리트리아와의 國境에 잇는 아도와에 集結하고 一萬四千의 伊太利軍과 對戰하엿다 伊軍은 三部隊로 나누어 進軍하엿스나 濃霧로 間間에 聯絡을 缺하야 左翼을 비롯하야 全軍은 總退却을 不得已하게 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退却은 潰敗로 潰敗는 慘殺로 化하야 伊軍의 損失은 死傷과 捕虜를 合하야 一萬 以上에 達하엿다

◇

이戰爭은 메네릭의 地位를 確固케하고 그로하여금 政權을 擴張하는데 充分한 餘力을 주엇다 今日에 伊太利가 거이全世界의 輿論을 無視하고 國力을 傾倒하야 二十餘萬의 大軍을 東阿로 輸送하야 에國에 武力占領을 敢行하려는 意圖를 示現하고 잇는것은 勿論 經濟的으로 또는 政治的으로 여러가지 原因이 잇슬것이다 아도와戰의 慘敗를 雪辱하려는 復讐的心理도 重要한 原因의 하나일것이다

從來提議된和協試案 一切拒否키로決定

代案을作成,壽府代表部에訓電

에國最後的大會議結果

【아디스아베바九日發聯合】雨期終了를 旬日後에 압두고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八日閣議를 開催하고 和戰兩策에對하야 最後的大會議를 열엇바 會議는 八日深更에 及하야 討議는 緊張하게 進行되엿는데 結局從來 提出된 一切의解決案을 拒否하기로 決定하고 代案을作成하야 九日주네브駐箚 에디오피아代表에 對하야 重要訓電을 發하얏다 最後的讓步案의 內容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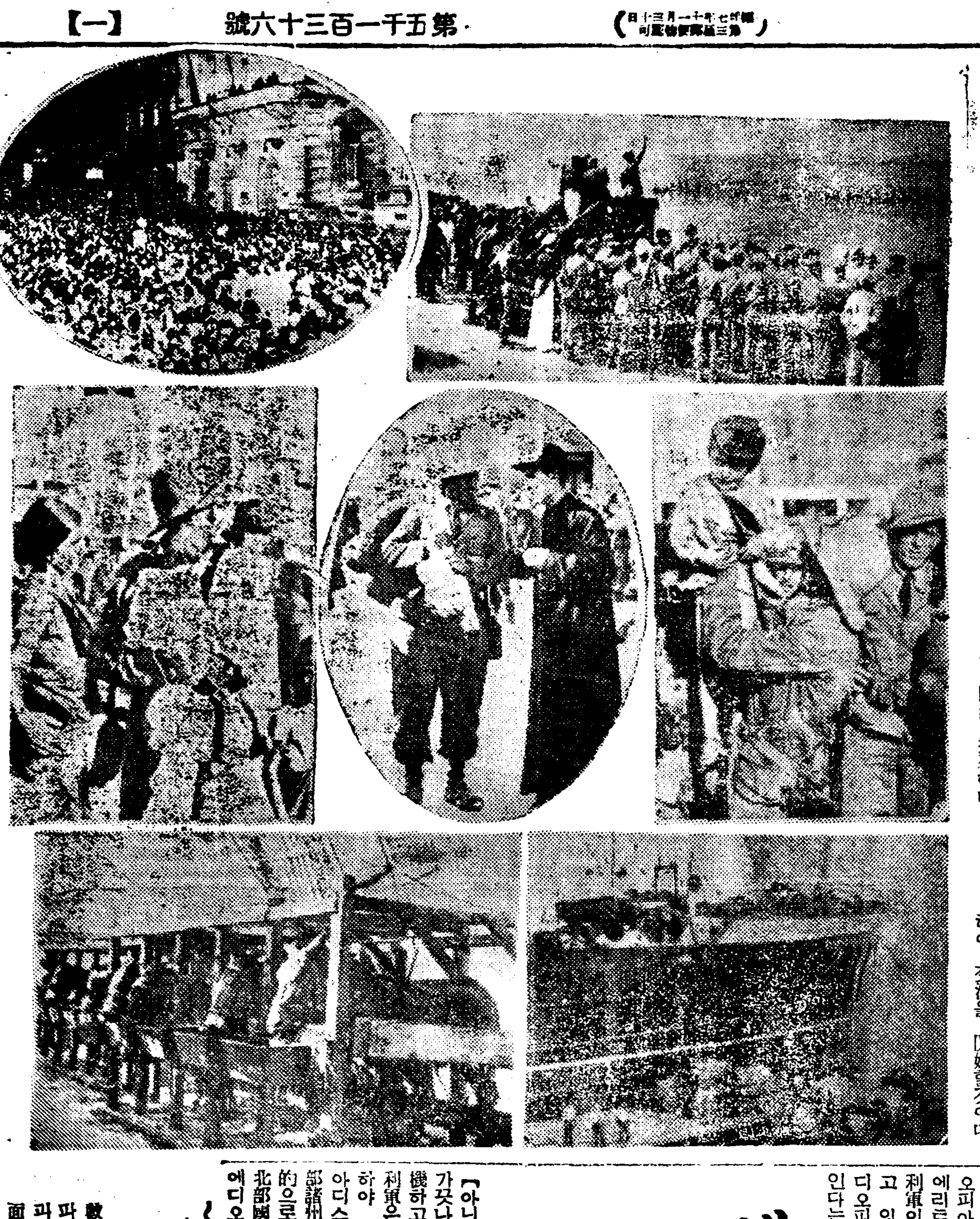
最後的讓步案內容

一、伊에兩國 紛爭解決을 名目으로하야 從來여러가지 和協讓案이 提議되엿스나 이等試案은 에디오피아 政府로서는 다首肯할수가 업다。더욱이 英國政府의 이라크國에 對한것과 同樣으로 伊太利政府가 에디오피아를 保護國化한다든가 國際警察隊를 設置한다든가 其他 英佛伊 三國政府의 委任統治案等은 에디오피아政府로서는 斷然 拒否한다

一、但 에디오피아 政府는 內政改革에 對하야 國際聯盟의 技術的協力을 歡迎하고 理事會가 適當한 技術 專門家를 任命하야 에디오피아 政府에 派遣할수잇다 또한 에디오피아皇帝는 理事會의 推薦한 顧問에 對하야는 最後的 諾否를 決定할 權限을保留함

一、에디오피아政府는 오가덴州의 東南部를 伊太利에 割讓할 意思가잇다 伊太利政府가 應諾하면 同地方의 實地에對하야 交涉을 開始할것이다

一、그리고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伊太利領에리트리아로부터 콘달까지 約二百粁에 亘한 鐵道敷設을 容認하고 또一九二八年以來의 交涉을 再開하야 아디스아베바로 부터 아사브港까지 이르는 道路開鑿에 對하야 協議를 遂할意思가有하다



伊進擊準備에對해 에政府서公表

【電通아디스아베바九日發】에디오피아 政府는 九日콤뮤니케로 에리트리아 國境方面에서 伊太利軍이 重要한 活動을 開始하고 잇는데 右는 明白히 近近에 에디오피아領 進擊의 準備로 보인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에國北部國境線 戰雲刻刻切迫

伊軍은『아도와』에肉薄할作戰 에軍은奇襲戰取할듯

【아디스아베바九日發聯合】雨期가끗나기를기다려 오래人동안待機하고잇든 에리트리아駐屯伊太利軍은 마춤내國境線方面으로 向하야 出動을開始한듯하다 國都아디스아베바에는 에디오피아北部諸州知事로부터 飛報가 續續的으로 到着하야 戰雲은 벌서北部國境線上을 隱蔽하게되엿다 에디오피아軍作戰本部의 情報에 依하면 에리트리아駐屯伊太利軍은 白人部隊十萬 土人部隊數千에達하는데 國境線을 突破하고 아도와에肉薄하는 作戰을 取할듯하여 아도와를占領하고 雪辱의 宿願을마친後 伊太利軍은 다시南下하야 콘달을 陷落할方針이라 一方 에디오피아軍隊는 만가스야 將軍이北方 司令官이되여 악숨地方으로부터 精悍無比한國軍 三萬五千을 擁하고 待機하고잇스며 더욱 콘달地方에는 軍五萬이 駐屯한다고 傳한다 但 만가스야 將軍은 豫定의 退却을 敢行하야 伊太利軍을 奧地로誘導하야 伊太利 攻擊部隊의 本部와의 連絡을 斷絶케 하나 軍需品補給 困難에陷케 됨을 기다려 得意의 奇襲戰法을 使用하야 대번에 伊太利軍을 殲滅할方針이라고 解釋되다

伊軍大移動開始

에軍猛將미將軍騎兵四萬五千引率하고 緊張한地帶向해進軍

【電通아디스아베바九日發】에디오피아 政府側着報에 依하면 에리트리아 駐在 伊太利軍의 大部隊는 七日以來 아스마라로부터 에디오피아領 아디카이에 通하는 路線에大規模의 大移動을 開始하야 에디오피아 北部國境은 갑작히 緊張되여 에디오피아政府는 前衛部隊에 衝突回避를 嚴命하면서 戰略上必要한 防備手段의完備를期하고잇다

【電通아디스아베바九日發】에디오피아軍의 猛將미카엘 將軍은 가미族의 剽悍한 騎兵隊를 主力으로한 四萬 四千名의 部隊를 引率하고 南部國境에 接近한 緊張地帶 오가-덴沙漠으로 進軍하기를 命令하엿다 이오가-덴沙漠은 豊富한 油脈埋藏地帶로서 伊太利의 垂涎하야 마지안는 地域이다

駐에伊公使館 伊軍移動認定

【아디스아베바九日發聯合】伊太利領 에리트리아駐屯 伊太利軍隊가 에디오피아國境線에 沿하야 行動을 開始하엿다는 報道에 關하야 아디스아베바駐箚伊太利公使館은 九日 左와如히 聲明을 發表하야 軍隊移動事實을 是認하는 同時에 이를說明하엿다

에리트리아駐屯伊太利軍隊의 移動은 事實이나 이것은單純히 通常一般의 移動에 不過하는것으로 何等特別한 意義를 가진것은 아니다

英말타島의 防備强化 英伊反目激化

【電通말타島九日發】伊에紛爭을 圍繞하고 英伊間의 反目이 漸次激化하여가는 此際 伊太利本土와阿洲植民地를 連絡하는 航空路의 咽喉를 扼하는 말타島의 防備强化는 英海軍의 當然實施할것이라고 豫想되든바 果然 九日에이르러 英國本國艦隊에 屬한 潛水艦四隻이 暗褐色으로 塗裝하고 一驅逐艦과 同伴하야 말타島의 要港 말살르시드港에 入港하엿다 但 其艦名은 秘密에 付하여잇다

伊東阿遠征畫報

二十五萬名以上의 大兵을 東阿로 動員하야 全面的으로 에디오피아 攻略을 計劃하고잇는 伊太利全土는 戰爭準備와 大部隊 動員으로 上下가 들석하고잇는것은 本報가 이미 繼續報道한바이어니와 今日到着한 寫眞數幅은 그것을 如實히 表現하여준다 寫眞上右는 伊首相의 送別辭에 羅馬城外 베네벤토飛行場을 出發하야 東阿로 向하는 파시스트 第二十八軍團 손든것이 무首相 寫眞上左는 遠征軍을 送別하는 羅馬城中의 大雜踏 寫眞中은 遠征軍人의 家族과 떠러지길을 슬퍼하는 點等이니 寫眞右는 어린아들을 最後로 안은軍人 中은 出征하는 神父의 惜別場面 左 어린 두아해와 안해와 갈니기를 슬퍼하는 出征軍人 寫眞下는 나폴리에서 東阿遠征軍과 軍用品을 積載하고잇는 巨船 기안푸랑코號와 船上에 滿載한 軍馬

에國國際管理案 各代表反對態度

佛代表必死의釋明도無效力 五國委員會討議內容

【電通주네브九日發】九日午後三時四十分(日本時間九日午後十一時四十分)부터 一時間에 亘하야 行한 五個國委員會의 伊에紛爭解決案討議內容에對하야 權威잇는側으로부터 聞知한바에 依하면 라발佛首相의 代理레시에프란스代表가 提出한 國際警察隊派遣을 含한 에디오피아國際管理案은 冒頭부터 五個國委員相互間에 甚한意見對立을 生하야 벌서부터 停頓狀態에 陷하엿다 即 이든英代表 오시스키 체코兩氏는 充分한 研究乃至 本國政府의 妥協必要를 理由로 賛否를 保留하는 態度를 取하얏다 英國側에 何等의 難色이 잇다는것은 일즉부터 널리 豫想되는바이며 다음에 議長 마다리아가스西班牙代表는 佛國案 反對를 表明하엿다 佛國案이 如斯히 忌憚업시 酷評을 加하엿고 斯한 難局에 逢着하게 되것은 또 아라스 土耳其代表도 이에 立案者인 佛國 首相의 眞意가

事態의急迫으로 에國、總會에도提訴할意向

【電通주네브九日發】傳하는바에 依하면 에디오피아代表는 理事會、五國委員會에 急速且確實한 紛爭解決案을 遲滯업시 作成하기를 要請하야 萬若 來十八日까지에 作成치못할 境遇에는 에디오피아本國 南北兩國境의急迫한 事態에 鑑하야 問題를 理事會에만 依賴치안코聯盟規約第十五條第九項에 基하야 새로 總會에提訴할 意思가잇다고 警告한 模樣이다

小委員會人選 英佛西葡土代表로

【電通주네브九日發】聯盟伊에紛爭五個國의 主張을 檢討하기爲하야 任命한 小委員會 委員의 멤버-는 左와如하다
로페스·오리반(西班牙)
조스제프레·룽즌(英吉利)
루네·샨칸랑(佛蘭西)
무라지스로크로스키(葡萄牙)
케말·뿌슴(土耳其)
그리고 小委員會의 第一回會合은 十日午前十時부터 開會키로 決定되엿다

植民地問題로 獨,近日聲明

伊國과의接近極注目

【주네브九日發聯合】駐獨伊太利大使베날드·아드리코氏는 八日突然 히틀러總統에게 信任狀을 捧呈하고 獨伊兩國의 親善關係를 誇示하엿는데 植民地擴張을 要求하는點에잇서서는 獨伊兩國政府는 全然 同一한 立場에 잇다 히틀러總統과 뭇솔리니首相의 關係는 歐羅巴刻下의 國際政局에 重大影響을 與하는 것이라고보나 獨逸政府代辯者는 植民地問題에 關하야 自國의 立場을 示明하고 九日夜 獨逸政府가 十月十四日 正式으로 聯盟을 脫退하기前에 히틀러總統은 植民地問題에 對하야 自國의 立場을 聲明하겟다고 述하엿다

에디오피아를 今日伊太利에 與하려하는데 따라 伊太利의 欲求와 聯盟의 再然과를 兩立식히려고 企圖하야 그 具體案을 國際政策이라고 云하는 發面을 싸워 提出한것이라고 解釋하는 傾向이 만키때문이다 卽 에디오피아를 事實上 管理할 外國人警察隊는 勿論國際的 組織이나 佛國案은 漸次伊太利軍을 主要勢力으로하고 數年中에는 特히 伊太利兵 警察隊로하려는 計劃임으로 佛代表必死의 釋明도 이疑心을 풀수업고 結局 十日 라발佛首相의 再來를 기다려 再次佛首相의 說明을 聽取하기로되엿다

佛領소말리란드에 佛政府의駐兵增派

【電通巴里九日發】佛國政府는 伊에紛爭이 惡化되는데 鑑하야 現在 自國의 權益擁護를 爲하야 佛領소말리란드駐屯兵 約二千으로는 不足함으로 植民兵部隊의 從軍志願者中에 特히 六百名을 選拔하야 近日中에 增派하기로되엿다

八田滿鐵副總裁 近日辭意表明

【大連九日發聯合】八田滿鐵副總裁는 十日夜八時 大連發 新京에赴하야 南司令官에對하야 드듸여 圓滿히 勇退의 決意를 表明하고 一旦歸任하야 松岡總裁와 協議한後 그時期를 決定하기로 되엿다

專任遞相으로써 望月圭介氏決定

【東京電話聯合】專任遞相은 十日三長老會議의 結果望月圭介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엿는데望月氏도 이를受諾하엿다

(寫眞은 望月氏)

英勞働黨首 란氏辭職

伊『에』紛爭에對한 軟派態度에不滿

【倫敦九日發聯合】目下倫敦에서 開會中인 英國勞働組合大會에 잇서勞働黨議員團과 勞働組合幹部와의 意見이 對立되여 九日아침에 勞働黨首 란스베리氏는 辭職을 申請하엿다 이에對하야 勞働黨議員團은 極力 慰留中이다 對立의 原因은 에디오피아問題로 勞働黨議員側이 聯盟의 原則에 從하야 穩健한 態度로 臨할것을 主張한데 對하야 幹部側은 即時 制裁規定 或은 스에즈運河의 閉鎖로서 이에 對處할것이라고 主張하야 란스베리氏는 辭表를 提出케된것이다

에國訪日使節 다氏上海到着

【上海十日發聯合】에디오피아帝國의 訪日使節 다비빌브氏는 十日午前九時 佛國汽船 아도스號로 來滬하엿다 同氏는 멀리日本을 訪問하고 에디오피아態度를 詳細 表明하려하는 重大使命을 帶하엿는데 明十一日出帆 長崎丸으로 長崎에向할豫定이다

八面鋒

普通學校 兒童의 身體檢査는 一年 一次 하건만, 아즉것綜合的 健康狀態는 未發表。

◇ 營養不足과 寄生虫保有者가 가장 만흔 모양이거니와 近視眼、肺病도 相當히 만흔 모양。

◇ 營養不足과 肺病은 서로 附隨物이 되엇거니와 近視眼의 만흔 原因이 鉛筆心이 구더서 볼라고 애쓰다가 不知不識間 그리되는것은 專門家가 아니면 모를 現象。

◇ 어찌 그뿐이랴 採光안되는 敎室, 카텐업는 敎室에 近視, 亂視가 만흔것은 近來의 校舍의 通弊。

◇ 한편엔 戰爭準備가 着着進行되는데, 한편에선 五國委員會니 小委員會니 또한 形式的 會合만 거듭。

◇ 強者의 뜻을 거슬리지 안케할라는 調停이 成立될가?。

紳士淑女도어린애기도
「牛乳」의 柔軟한거품은 여름철살을敎育하야 평장한 健康美로
牛乳石鹼
No.331 共進會石鹼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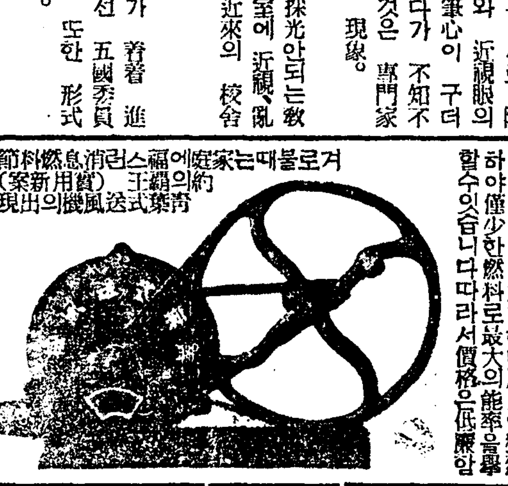
小兒肝氣病
唯一無二한神方藥이有하오니御用하시압 藥價參元也라
京城東大門外新設洞里七〇八 梧南醫院

精神病科
神經衰弱精神病專門 入院室完備
京城府外淸涼里 原病院 院長 原振緖
電(淸涼里)2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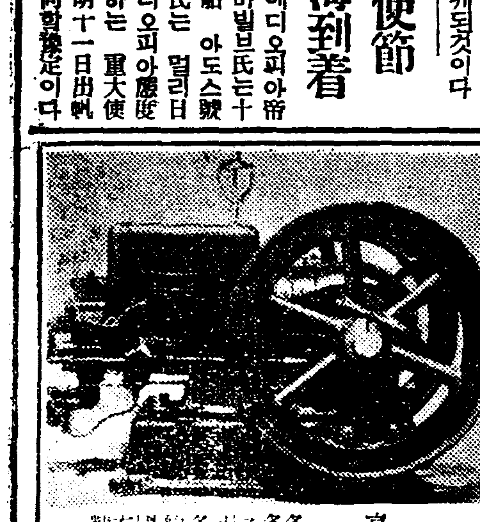
恩給
長期擔保利立替 如何한程度까지도便宜成事 高利借換歡迎乞訪問
京城府笠井町一五〇 朴商會

銀粒 十寶丹

今夜彼女와맛난다 二三粒의十寶丹을먹으면 快感이倍加上昇합니다
特約店募集(案內書進呈)
容器付(三〇〇粒入)拾錢 (到處藥店에有함)
京城府櫻井町 米田勇藥品部

겨로부터불때는家庭에 福스런消息 燃料節約約九割의 王者 (實用新案) 青葉式送風機의出現

本機는鈍鐵製임으로構造가堅固하야永久使用에適當하며風力이猛烈하야僅少한燃料로最大의能率을擧할수잇습니다따라서價格은低廉함
本工場特許發明은前代未聞의놀나운消息이며完全히우리손으로된完全한家庭的重寶입니다
詳細要照會
京城青葉町一丁目一八〇 青葉式送風機製造發賣元 青葉鐵工所
電話(龍山)一〇二七 振替京城一〇三八番

營業課目
稻子其他 特產物貿 易委托買 賣稻子擔 保融資業
農村兄弟의 便利한機關 一次試驗하야보시면信用을可辨
哈爾濱中馬路五號 匿名組合 翔孚公司
經理 金應周 張雲翔 理事 李殷選
電話道裡六四〇四番


京光式
各種精米機 各種搗精機 ゴム擦機 ゴムロール 各種ベルト 米撰機 各種型自動メタル 結束SKFベアリング 國產SKFベアリング 玄米工場精米所設計請負一式
京城府岡崎町七一 (岡崎町電車停留所前)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 李光賢
電話長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一五番 電略(ケ)又ハ(ケイ)

京城 中等公民學校專修科 生徒募集
○後期新學期開始○晝夜各五十名○願書締切十月五日
○學則要郵券○京城府太平通大漢門前(電本四、七六一番)

당장에 숨이끗칠듯한괴로움
천식
완고한기침에 놀라운新創見劑
「スペロイン」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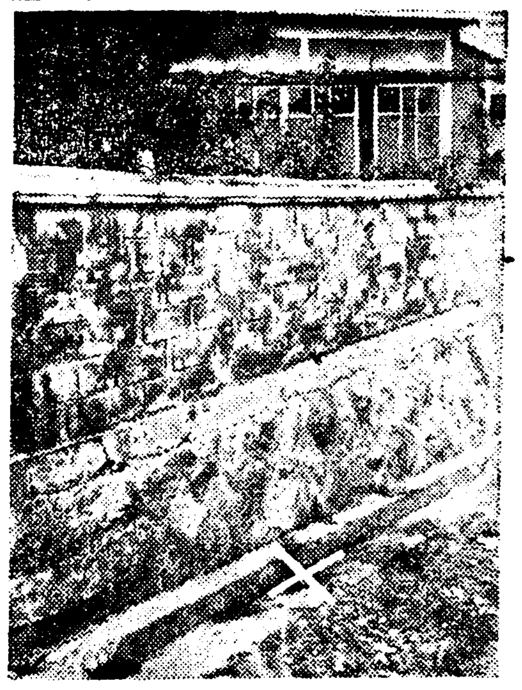
注射以上의頓服藥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頓服하면 喘息의 發作을 巧妙히小便으로빼는 强心性의 貴重한 化學藥입니다
△決코一時的속임藥은아니오니 아모리괴로운천식의 發作도「스페로인」의頓服으로아조쉽게나어니조곤하여집니다
△완고한기침이그치고 담이아니나와서咽喉가爽快하되며呼吸이적어지고
△身體에 爽快한溫暖感을주어서 氣分이非常히조하지며心臟이 편하고安眠이잘됩니다
△이와가티 有效하나모르히네나 아드레나린其他의痳醉藥의問題가안임으로 아모리連續하야 服用하야도 人體에絶對無害가업서 念慮될것이업습니다
△繼續服用하야 두면喘息의發作이적어지어드대여 喘息이나지안토록튼튼한體質이됩니다
「스페로인」實驗者는効力의偉大함에놀라서『참으로注射以上이라』고들며깃버하십니다 어떠한천식에든지効力이잇슴으로 的確합니다 무엇을服用하든지無効하야 천식으로죽기까지나낫지안는다고悲觀하고잇는사람이나 注射로自己의 生命을自己가短縮시키는사람에게 一大福音입니다 迷惑치마시고只今곳實驗하십시요 詳細한說明書는藥에添附
適用症 『천식』 氣管支加答兒、氣管支擴張、완고한기침、百日咳、感冒、神經痛、偏頭痛其他 기침의諸症
藥價 『스페로인』 六日分一圓、十五日分二圓、二十五日分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有名藥店에有함) 萬一品切時는直接으로 送金하면 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三ノ六(電車上六) 電話南四〇一五番・振替大阪七五一一四番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四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大黑藥房 平壤大和町森田藥房 大邱本町 釜山辨天町廣田藥房

格鬪튼竊盜遂死亡
西大門署巡査가追擊中에
今曉、竹添町의慘事

십일 새벽 시내 서대문밖 죽첨정(竹添町)삼정목 금화장(金華莊)안에서 절도혐의자가 추격하든 경관에게 붓잡혀서 서로 격투를 하다가 결국 경관의 패검에 찔려서 죽어버린 참사가 발생하엿다 찔리워죽은 절도혐의자는 원산(元山)출생으로 절도전과이범인 김창선(金昌善)이라는 오십일세된남자로 찔려서 죽기 까지된 경과에 대하야 서대문경찰서와 경찰부장의 발표에 의하면 다음과갓다

赤十字病院入院 二時間만에絕命
腹部網膜에칼마즌것이致命傷
被害者는前科二犯



구일오후아홉시쯤에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죽첨정파출소에 근무하는 니자안정(尼子安正)(三四)순사는 그관내 죽첨정삼정목이백사십번지 아플순찰하다가 거동이 수상한 남자한명을 붓잡아가지고 십일오전두시쯤에 서대문경찰서로 넘기고 오전세시쯤에 자기의 숙소로 도라가든중 금화장(金華莊)으로 잠간들려서 순찰을 하게되엿섯는데 세시반쯤에 금화장안 죽첨정삼정목삼번지골목에서 『도적이야』하고 소리를 질르는 소리가 들리자 약열간쯤되는 거리에 수상한남자한명이 실금실금 거러가므로 니자순사는 그남자가 도적인줄알고 추격을 하게되고 또한도적이 침입하엿든주인 죽첨정삼정목 삼번지 습선일(辻善一)이라는 사람도 뒤를쫏차 오므로 순사는 더욱 힘을어더서 절도혐의자를 추격하여갓다 그런데 그때그절도혐의자는 다섯치가량되는 칼을 휘두르며 찔을듯이 시위를 하며 도주하엿다 그러나 작구 추격한결과 죽첨정삼정목삼번지 이십오호 매전(梅田薫)의집 담미테 이르럿슬지음에는 순사를 향하여 돌을던지며 칼을 휘두르는것을 그냥 추격하야 서로 붓드럿는데 한바탕 구을게 되엿는데 그때에 니자순사는 자기의 패검을 뽑아서 외편 복부에 세곳 엇개에 한군데 뒤ㅅ등에 한군데로 세번이나 정신업시 질럿든바그 혐의자는 그만 중상을입어 힘을 쓸수업시 다량의 출혈을하고 거의죽게된것을 새벽여섯시쯤에 적십자병원으로 메여다가 치료를 시켯스나 오전일곱시오십분에 드듸어 절명되고 말앗다 (사진은절도가혼도하엿든자리)

窓口로侵入 하려든犯人

엄밀히 취조중이다

죽은 절도혐의자 김창선은그날밤에 죽첨정 삼정목 립천(立川)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엿다가 물건을 훔치지못하고 다시 전기습선일씨의 집에드러가서 방안으로드러갈양으로 유리창을 부시다가 그만 그집주인에게 들켜서 도주한것이라한다 그리고 그의주소성명은 그의지문을 박여다가 경기도형사과에서 대조해본결과 비로소 절도전과이범 김창선이라는것을 알게된것이라한다

木村署長談

(목촌 木村)서대문 경찰서장은 말하되 『피의자가 죽게까지된것은 미안한일이나 니자(尼子)순사의 처사는 직무집행상당연한일로 생각한일이라고 생각한다』고하엿다

警察部長談

범인은 전과이범이니만치 가만히 포박당하엿스면 조흘것을 대항격투하야 결국 죽게된데 대하여는 범인에게 대하야 퍽미안한일이라고 생각한다 니자(尼子)순사로서 밤중에 강적이 대항해오면 대개 다러날것을 그는 끗끗내 범인을 체포한데 대하여는미더운일로생각한다 이는 직무상 당연한일로서 아모 형사문제는 안될것으로생각한다

巡査를取調
田中檢事現場臨檢

이 참사가 발생한 보고를 듯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는 주견(酒見)차석검사와 전중(田中)검사가즉시 현장에 출동하야 검증을하고 시체는 적십자병원에서 해부하엿다 순사는 전중검사의 담임으로 즉시 서대문경찰서이층에서

◇……익//어//가//는//감……

缺航中의連絡船 九日夜부터復舊
關釜間滯客各千餘名모다輸送
京釜線에臨時車運轉

이틀동안 맹렬하엿든 조선해협의 폭풍우도 구일밤에야 겨우 끗쳣스므로 구일밤의 관부련락선은 각기부산(釜山)과 하관(下關)을 출범하엿다。더욱히 하관에는 일천삼백명의 려객이체류되여잇스므로 특히 제칠편 창경환(昌慶丸)이외에 림시편으로 덕수환(德壽丸)을 운항케 하야 십일 오전여섯시에는 덕수환、동여섯시반에는 창경환이 련속하야 부산에 도착되아 한꺼번에 다수의 려객을 내려노앗스므로 이 려객을 수송하기 위하야 림시 제팔십칠렬차 (부산오전 일곱시발 경성오후세시착)를 운전하엿스나 그다음의봉천행(奉天行)『노조미』제칠렬차와 제오렬차는 모다 초만원이엿다 한편 구일밤부산을 출범한제팔편 경복환(慶福丸)에는 부산에 체류중의 려객전부를 수용치못하고 약이백명을 남겨노앗스므로 십일 오전 부산출범의제이편에 수용하야 겨우 삼일만에 관부련락선은 상태에복구되엿다

寺刹令大改正
街頭에進出토록
社會課에서立案中

총독부에서는 심전(心田)개발운동에 반한사찰(寺刹)의 정화(淨化)게획을 수행하기 위하야 조선사찰령을 개정하고저한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그초안은 방금 사회과에서 립안중이라는바그내용은 사찰의조업을 유지함에 필요한제한 승려(僧侶)의자격에관한 규정、사찰의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과 말사(末寺)와 포교소(布敎所)에 관한문제등 여러가지 근본 문제를 개정할 터이라한다 따라서 금후불교의 포교는 승려의 산중수양 으로부터 가두진출을 하야 총독부의 특별한 보호하에 소위국가적 종교의 발달을 보게될것으로 다른종교와의 대조(對照)에잇서서도 주목할만한사실이라한다

寫眞은開城에열린『올림픽의밤』(昨朝刊運動欄參照)

運動競技

女流選手招聘 水上競技大會
十六日京城풀서

朝鮮新聞社에서는 來十六日 京城풀에서 第二回日本女流水泳選手招聘水上競技大會를 열터인데 招聘될選手는 前畑秀子孃과 小島一枝孃外의 一流選手十名과타이第選手二名을合하야 十二名인바 競技種目時間等은 追後發表한다고한다

神競卓球豫選會
京畿道選手決定

第十一回 朝鮮神競大會卓球 京畿代表決定의 豫選會는 八日午前十時부터 城大醫學部 卓球場에서 擧行한바 다음優勝組十二選手를 代表로 決定하엿다

白井滋(高陽)3—2黃昌潤(高陽)
崔東旭(富川)3—1東眞澈(開城)
隈部(高陽)3—1桒井慶老(長湍)
李東俊(高陽)3—0韓正燦(高陽)
金容英(高陽)3—0渡邊(高陽)
邊龍煥(高陽)3—1富山(高陽)
田中(高陽)3—1崔善(高陽)
池渕榮(高陽)3—2大野(高陽)
太田(高陽)3—1東高橋(仁川)
澁谷(水原)3—2金正烈(高陽)
李順佑(開城)3—0金榮養(高陽)
黃文顯(開城)3—2安達(始興)

神競뽀ー트레ー스
來廿二日擧行

第十一回 朝鮮神競『뽀ー트레ー스』는 來廿二日 午前九時부터 漢江人道橋下『코ー스』에서 擧行케되바 競技種目은 附定滑走千三百米 滑走距二千米의 二種目인데 參加希望者들은 日本漕艇協會朝鮮支部로 廿日까지 申請하기를바란다한다

米國野球戰績

【紐育四日發聯合】世界野球爭覇戰의『메재ー리ー그』의 四日現在의試合成績은 다음과가티『데드로이드』와『뉴욕』『센드루이스』가 依然首位를 占하고잇다

◇아메리캔·리ー그◇

	試合數	勝	敗	勝率
데드로이드	127	83	44	654
뉴ー욕	125	73	52	584
구리뷔란드	126	65	61	516
치카코	130	68	62	504
뽀스톤	128	64	64	500
와싱톤	127	54	73	425
필라델피어	122	51	71	418
센트루이스	125	50	76	395

◇내쇼낼·리ー그◇

	試合數	勝	敗	勝率
센트루이스	127	80	47	630
뉴ー욕	125	77	45	616
치카코	132	80	52	606
피스뻐ㄱ	132	74	58	561
뿔스구린	126	58	63	461
필라델피어	126	54	72	429
신시나지	131	56	75	427
뽀스톤	123	33	92	264

今夜

今十日午後七時三十分
世界氷上制覇를爲한
『올림픽의밤』
◇……映畵·音樂·講演……◇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白券 一圓 靑券 五十錢 學生 三十錢

民團事務所를 武裝團이襲擊

【警務局着電】구일 오전세시에 즙안현제삼구(輯安縣第三區)외분구(外岔溝)경찰서 왕(王)복(卜)두경관이 무장단의 련락자인 외분구초강환장(姜煥章)에게 유인되야가서 무장한채로 도주하야 외분구 민단사무소를 습격하고 장총한개와 기타무긔를 강탈도주하얏는데 외분구경찰대와 수비대가 추격중이다

碧潼對岸土兵 警官과交戰

【警務局着電】구일오전령시사십분경에평북벽동(碧潼)대안관전현추피적(寬甸縣秋果赤)초목곡(木谷)강안에 무장단해승(海勝)일파팔명이잠복하야압록강을 조항(潮航)중인 선박을 습격코자 한다는것을 탐지하고 벽동경찰서삼박(三朴)주재소와 동하(東下)출장소 경관일곱명이 경계코자출장하든중 그들이 먼저발포하므로 응전하야 약십분동안후에 격퇴식혓다

兒童虐待防止法
實施準備次調查
學務、警務局明年實施토록注力

총독부는 명년도에 아동학대방지법(兒童虐待防止法)을 실시코저 게획중이엿스나 예산관계로 중지되엿슴으로 십이년도에는꼭 이것을 실현식히고저 그준비공작으로 학무국은 경무국과 협력하야 금년십일월일일 현재전조선에서 학대밧는 아동을 조사하기로되엿다 조사할아동은열네살미만으로서 이번조사는 여하한수자를보혀줄는지 조선에선 최초의시험이니만치자못주목된다

警察部繼續活動
阿峴서青年檢擧
安福山等十七、八名檢擧한後
事件은漸次擴大될뜻

긔보=경긔도고등과 사찰계(査察係)에서는 약일개월전부터 어떤조류의 비밀결사 조직혐의로 안복산(安福山) 최병직(崔秉稷) 리인영(李仁榮) 남충희(南忠熙) 리형원(李亨遠) 정재철(鄭載轍) 김철수(金喆洙) 안철수(安哲洙) 강정윤(姜正允) 정재봉(鄭載鳳)등 직공과 청년을 합하야 약 열칠팔명을 검거류치하고 날마다 고촌(高村)주임이하 게원이 밤낫으로 엄중한 취조를계속하야 조서작성에 분망중이든바구일오후에는 또새로운 단서를어덧든지 동게원수명은 부외아현(阿峴里)×십×번지를 습격 하고 그곳에 류숙하고 잇는 리규복(李圭福)이라는 청년을 검거하는 일방 아직도맹렬한활동을 계속하고 잇는데일단락이되는것으로 보이든 이사건은더욱더욱 진전되야 검거범위가 더확대되는것으로 추측된다

梁瑞鳳部下 結局上告棄却

만주 통화현(通化縣)에 근거를둔 국민부 조선×××총사령(國民府朝鮮×××總司令)량서봉(梁瑞鳳)의 부하로 잇서가지고 소화구년구월 신빈현(新賓縣)부근에서 일본토벌군 륙십여명에게 발포항전한 정주(定州)출생 리종훈(李鍾勳)(三○)의 치안유지법위반 살인、살인미수에 관한 상고공판이 구일오전열시부터 경성고등법원에서 히르구(廣)재판장담당 옥명(玉名)검사의립회아래 개정되어 상고리유가업다는것으로 기각이 되엇는데 동인은 지난사월 신의주지방법원과 오월 평양복심법원에서 각 사년의 언도를밧고 불복상고한 것이다

往十里에大賊

팔일오전세시경시외 하왕십리(下往十里)에 절도가드러가서 도적질하는 것을 가족이 현장에서 붓잡어 동대문서원에게 주엇이잇섯는데 그는 동리에 본적을두고 주소부정한절도전과사범 의 김천봉(金千奉)(三七)으로 금년팔월 서대문형무소를나온이후 전후수십회에 현금 시계 의복등수백원어치를절도하고 도라단엿다는데 취조에 따라이외에도 피해가 상당하리라한다

腦脊髓膜炎의猛威
最近一層擡頭形勢
一月以來四百名中死亡二百
現在關西地方에猖獗

총독부 위생과의 조사에의하면 뉴행성 노막염(腦脊髓膜炎)은금년에드러서도 의연히 창궐하야 구월일일부터 칠일까지에 발생한환자는 사십이명으로 평남의 십오명과 평북의 구명등을 비롯하야 경긔도 황해도등에 창궐하고잇다 그런데 금년일월이래의 발생환자는 사백십삼명으로 그중사망자는 이백사명이고 현재 환자는 오십오명이라한다 또두창(痘瘡)은 일월이래의 발생환자총수는 일천칠십일명인데 그중사망자는 이백륙십팔명이고 현재환자는 십오명이라한다

一事는不再審
檢事長上告
永興、森林令違反事件으로
後者處罰은當然無罪

한가지 사건을 두번 심리하지 못하는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라하야 현행법률의 원측임에도 불고하고 함흥(咸興)지방법원에서는 한가지 사건을 두번심리한 일이 잇서서 십일고등법원검사국 립정(笠井)검사장은 이사건을 비상상고(非常上告)하야 두번재 처벌한것을 무죄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엿다 사건은 함남영흥군 호도면룡미리(永興郡虎島面龍米里)사는 어업자 김경형(金景亨)(三七)은 작년칠월 삼십일일로부터 그해 팔월 구일까지 그곳 군용삼림(軍用森林)에서 약사십년생되는 소나무 여섯개를 도벌한 사실로 영흥(永興)경찰서의 취급으로함흥지방법원에서 작년 십월이십칠일에 삼림령위반(森林令違反)으로 략식(略式)으로 벌금이십원의 처벌을바덧는데 그뒤 다시 원산헌병대(元山憲兵隊)의 취급으로 작년 십이월사일에 가튼재판소인 함흥지방법원에서 역시 략식으로벌금 십원의 처벌을당하엿다는것이다 그래서 이사실이 최근에 알려지게되야 립정검사장은 비상상고를 하게되는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晴時時曇

颱風은 昨日 半島南岸을 通過하야 日本海로 나가서 今朝는 能登半島 北方 約百키로의 海上에잇서서 中心示度七四六미리를 보이고 東北東으로 進行하고 이때문에 日本內地는 大槪 雨天 表日本沿岸은 南西風이 强하다 朝鮮도 아즉 흐리고 東岸은 조금비가온다 滿洲는 好晴이다

昨日最高 三一、五
最低 二四、一
今日正午 二六、一

皮膚病良藥 피부병양약
皮膚病에는 단하나뿐인 テーム水
데ー무水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大同小異하야 效力이 薄하며使用함에 不便한곳이적거리는 齊藥用도잇고도 스리기만하야 效果가잇는듯하나疑心스러운것이만하엿스니、旣往의皮膚藥의 不滿足과 缺陷을補充한것이 皮膚病良藥テーム水올시다 テーム水는 가장新皮膚諸症에對하야 適藥인것은 이미世上의定評잇소 때는 正히 皮膚病跳梁期、이尤甚한때皮膚病良藥テーム水의 常用을 推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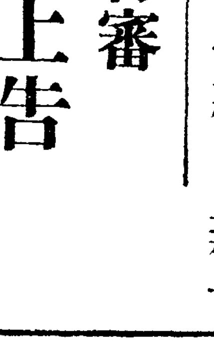
●땀도욤 ●옴 ●음보(습진) ●무좀 ●태독●부스럼 ●진물은데●가려운데●부름●힌어루러기●버짐●頑癬 ●피풍●여드름●주근깨 ●농가중●腎肝門지ー불은데 ●옷올닌데●黴칠덧나데●버륵 ●모기、갈다귀、빈대毒虫의刺傷皮膚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냄새업서用法이 簡單하며 速히낫소

テーム水藥價(廿錢、卅錢、五十錢、一圓 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이잇슴)
構酒商만소必히テーム水라指名하시고사십시요

新學期開始 九月十五日(第一類甲組)學則二錢切手
中等科第一部 各中等學校入學準備
中等科第二部 各中等學校上級編入受驗及鐵道從業員養成所遞信官吏養成所受驗準備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電本二一六〇番)

校舍大擴張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五日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學則要二錢切手◇校舍運動場敷地二千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電本二一六〇番)

高級寫眞機無代進呈
松岩商會宣傳部


新型各種 가다로구進呈
돈버리大王
리도ー式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된다
製菓法傳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一丁目 兒島製作所

腫氣 靑山膏 에옹히벅고

싱거ー中古재봉틀
十五種手踏型 百廿圓
十五種手廻型 百圓
(五個年責任保險附)
市內마음대로月賦販賣함
各種재봉틀月錄進呈
재봉틀賃貸一月五圓
◎쓰던재봉틀高價買入
京城鍾路二丁目二七

楠재봉틀店 (仁寺洞入口) 電話光三九六

當ル十一日特別大公開
一、歌舞伎座成紀念第三週特選 特別奉仕料下新大人卅錢小人廿錢
新興キネマ太秦超特作時代劇 原作 竹井諒 撮影 古泉勝男 錄音 土橋武夫 監督 野淵昶入社第一回 オールトーキー
長崎留學生
月形龍之介 森静子 杉山昌三九 久松三津枝 主演
田村邦男・松本泰輔・田中絹子・助演 取材の斬新!構想の雄大話術の妙味!正に時代劇トーキーに新紀元を劃する新興本年度の巨篇!
新興キネマ東京大衆超特作 オール讀物號所載 原作 岡田八千代 監督 松崎博臣 撮影 行山光一 錄音 野村孫 オールトーキー
國境の町
山路のふみ子復社第一回 主演 ポリドール專屬歌手 東海林太郎 特別出演 立松晃・荒木貞子・岡田静枝・有馬是馬助演主題歌 ポリドールレコード吹込
永樂町 中央館 電本三五二

九月十日낫브터三日間大公開 秋節勝頭에名講堂堂히上映!!
新興키네마社太秦大作品 母性愛悲劇
母 三人 全十卷
歌川八重子 北條たま子 渡邊糸子 鈴木勝彦 共演
萬都人士에待望篇!永遠不滅의名篇!참으로諸氏의게그ー얼마나 悲淚를자아낼만한名篇!!
컬넘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호랑크카부라監督 戰爭戀愛劇
風雲의支那 全九卷
바ー바라、스타우익크孃 니루스、아스타ー氏 森俊惡(日本人)孃
人生은恒常美女로말미아失敗이다!女性의滿足주기爲하야地位!名望!結果에는嫉妬!反叛!果然!이거야말노人生의本能이라할가!
每日晝夜三回 大衆料金 椅子席 二十五錢 特上席 十五錢 階下席 十錢 十二時三時半八時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第一劇場 電光二三三番

はれやか
¥0.30 ¥0.5 ¥1.0

九月九日밤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興行 낫一時 밤七時半始映
메도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爆笑劇
快賊데아보로 全九卷
監督……할로ー지氏 主演……스탄로렐氏 오리바하디이氏
大都映畵社超特作品 現代劇
與太者氣質 全六卷
監督……田中重雄氏 主演……中野健治氏 河合菊美子孃
부리모스社特作品 外劇
處女의決死 全六卷
監督……징파데이칠氏 主演……죠셉롤氏
豫告 九月十二日부터 스타당구 九月十五日부터 寢臺王
麻浦桃花洞 電龍一三 桃花劇場

九月十一日부터最高水準의名映畵封切 晝夜三回興行
폭스社超特別大提供發聲日本語解說版!
다루만다ー래이氏監修
바ー부ー나
마루대인조존夫妻決死의製作 鵬程六萬里!水陸兼用의飛機二臺를使用하여 猛獸의鬪爭과棲息狀態!土人의迷信!아푸리카大陸의現地錄音의記錄映畵
RKO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마크산도릿지氏監督
珍優바ー드우이라ー氏主演 로바ー드우루지氏
美人國武者修業
中世紀歐洲를遍歷하는無鐵砲行의騎士와逆境에呻吟하는一女性과의사이에얼키인奇想天外!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田中重雄監督
慘劇의一夜
中野健治、琴絲路、大岡怪三龍主演
貫鐵洞 優美館 電光三九五

江華產業紹介版

紹介版을내면서
江華支局長 琴澈

江華하면 물을분이잇슬지나 필두바 花紋席을말할때는 몰을분이업다 돌아보건대 江華產業組合이 創設되든 當時에影組合을 通하야 五十萬圓內外의 生產高가 今日에至하야는 百萬圓을 超過하얏고 從來에는 純全한 農村副業이 엿든것이 近間에는 次次專業化하는 傾向이다 또叺製作方面을 볼지라도 昭和七年에는 其生產高가 三萬圓內外이엇든것이 今日에는 十萬五千圓의 生產을 보게되다 이外에도 窯業이라든가 또는 今日까지 생각도 안두엇든 飲床製造業의 發達이야말로 躍進하는 江華產業界에잇서서 一大副目的價値가잇다 더욱僅僅發表된 朝陽紡織株式會社는 그資本을 五十萬으로 一回拂込十二萬五千圓을 終了하고 工場까지 近日中落成竣工을 보게되는 가장우리로서 注意의 焦點이되여잇다 말하자면 今日까지 숨기여두엇든 洪氏의 奮闘進出이야말로 江華產業界에잇서 慶賀치안흐면안될 事實인 同時에 今日까지 江華內에 株式會社로는 二十萬圓의 森信 十萬圓의 江華釀造가잇슬뿐—그를 合하고 進出할에잇서 果然 江華產業界는 活氣滿滿한 產業王國을 建設함과 同時에 그의前途야말로 光輝燦然하다 또한편으로는 江華物產組合이 內容擴張과 아울러 株式體로 變更코 百貨店의完備를 期하는 此際에잇서 關係當局者들의 久遠한 抱負乃至方針을 展開하야 압흐로의 進路의 羅針盤을 삼으랴함이 곳오늘에發行하는 『產業江華版』의使命乃至精神입니다。

產業江華의全面

『產業江華』을 새로히 가다담은解剖刀를들어 속입업는 解剖를하야 各部門에잇서서 어느程度까지發展性을띄고잇스며 얼만나한過去를가지고잇나보자。 더욱 朝陽紡織株式會社가 其資金을公稱五十萬圓이란看板으로 出生의聲을내여 우리로하야금 새로운事實을말케하고 江華에서 五十萬圓會社의出現이 이것으로 記錄을 만들엇고 이제事業에잇서서 窺闘컨데產組의事業그것에對等事業임을免치못할때 識者級으로는 其將來를 가장興味視하고잇는此際에잇서 우리로의 이紹介版을내이고 公正한 메-쓰를들은 衆望에依한 가장適切한時期에 잇合에잇다 더욱錦上添花로 物產組合이 이紹介版發行을 契機로 內容充實을目標로하야 體裁를株式으로한다니 우리 江華에잇서서 江華人士의 손으로되는株式會社가數를헤일수잇게됨에잇서서 더욱 意義가잇다。

그러면 이만한活躍期를形成하고잇는今日에잇서서 果然八萬大衆이其生產을갓고 自給함과 餘分에잇서對外的進出이 어느程度에까지밋첫나 이제 多少의數字統計를提示하야 다음을記錄해보자 사람의 原動力을 지워주는 糧食은 全江華를通하야 一萬四千五百二十二戶에 七萬七千七百五十二人의 生命을 살이고 남을것일가?

米	二二九、一九一石
大麥	四〇、八三四石
小麥	一、五七七石
大豆	一七、二四八石
小豆	九九二石

以上을 빗추워서 每人當一石七斗餘입니다 其他에도 雜穀이잇서서 能히輸出을식히고도 足한便입다。 다음으로

年十萬三千圓을 突破하는江華叺

江華의叺製作은 그數量에잇서서 퍽 長弱하야 昭和七年에 그生產枚數가 六十萬百五十八枚에三萬七千七百七十四圓四十三錢이던것이 이方面에積極的으로 農家의婦女를 비롯하야 邁進한結果가 一大活氣을띄여 一躍一百五十萬一千六百五十九枚에 其價格이 十萬三千八百六十一圓 六十八錢이라는 好調을 보이며 生產되商品은 第一殖產會社 京城事貿支局 仁川出張所 有馬精米所가 最多消費을 하고잇다 勿論 이外에도 農家에서 消費되는 數量이相當한바 압흐로도生產能率이늘것은 勿論이오 需用者가 만어질것이다 이리하야農家의 經濟을 左右하는 產物이 되고말엇다 다음으로

百万圓產出의 江華織物界

江華織物의 沿革을 본다면 距今四百餘年前부터 始作한것으로 當時에는 居座機로서 班布及白木綿을製織하든것을 最近에일으러 일직이 이方面에 着眼을한 先知者 河站面金東植氏와松海面高成根兩氏가 織機을 改良함과 同時에 大大的으로 努力을햇스나 中間數次에失敗를當하얏다。

[illegible] 正五年江華織物組合을 設立하고 奬勵하는 同時에織物의改良에注力하고 一般으로는 國庫의補助을어더 共同作業場을 設置하는 反面에 花蓆業者들도 이機會에 事業을奬勵시키며 다시大正十一年에 江華織物花蓆組合을 設立하얏다가 昭和六年이를 廢止하고 江華產業組合의出生을보게되자이方面에 積極的事業을 計劃하고 邁進한바 現在에는機業가三千五百餘戶나되고 年產額은滋年增加한다 現在에잇서過去三年間의 統計를보다면 다음과갓다

	數量	價格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以上와是之勢로 躍進하고잇는바 商品으로는 人絹交織布가首位어고 다음으로麻苧布이니바 이는모—다外國으로부터 輸入되는것과는性質이달라서 가장朝鮮사람에게 適切하도록 製織하는것으로 [illegible]

인조견파는여인

世界的으로 일홈난花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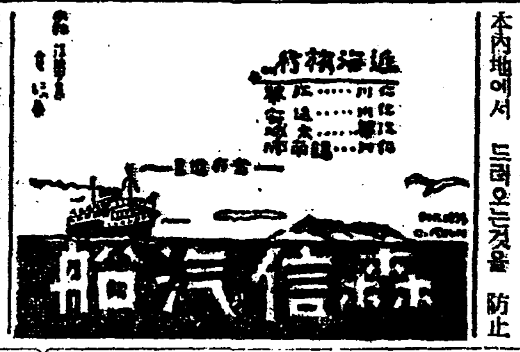
어는 滿全한副業으로 內外的으로 江華花紋席이라하면 依例히 禮物用으로 쓰게됨으로 漸漸需作業者이 늘고 最近에는 三絲가 물곳에서도 日本內地에 直接輸出을지진다、이도商品가洋洋한바 生產販賣는 江華產業組合에서販賣를한다 最近三個年間에잇서서生產額을 본다면 다음과갓다

年次	數量	價額
昭和七年	二、〇〇〇枚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華의窯業=

은 그리盛況치는못하나 江華郡內에 消費를채우기는 足한便일다 그中에서좀不足되는것이瞬襲일다 郡內五個所에分列되여잇서바 吉祥에서는 全혀瓶甕으로年生產이 一千五百圓을算하고 河岾에서는 水甕과瓶等인바 이는 他郡에까지 多少供給하고 잇는 狀態일다。其中 江華硝器組合은 昭和七年에 設立한것으로 純全히燒酒瓶만을 만들어서 日本內地에서 드려오든것을 防止



組合을會社로變更 消費層利益을企圖
副帶事業을擴張計畫
江華物產組合理事 宋恩庚氏 談

우리同志가 組合을創設할當時에는 그使命이큰만치 或時所期의成果를 보지못할가하고 퍽 躊躇하얏슴니다 마는江華人士의 無斷의聲援과 鞭撻를입어 日益事業이繁昌하여집니다。特히從來에는 三四重으로 中間商人에게 莫大한 利益을 搾取當한後 겨우一般消費層의 手中에 商品이 高價로 들어오게되든 恒常遺憾으로生覺하야 平素의 宿願이든 直輸入大商店經營을 實行함이江華十萬大衆의 經濟的 福利가될가하야 微弱하나마 江華百貨店을經營하야 直接生產地 製造元으로부터 物品을購入하야 消費者諸氏에게 廉價提供하는것이急先務인事業이며 또한 江華人士의 必需品인各種百貨가 俱備치못한關係上 仁川 京城等地에서 購入하는 不便을 덜어드릴가하야 江華物產組合의 副帶事業으로 江華百貨店을 新設하것되얏스며 한편으로 和信連鎖店을引受하야 그徹底를期하는바임니다 마는 아즉初創期라 未備한點이 不少하야 여러분에 不便한點이 만흘줄로 思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年度計畫을세우고 滿足을 드리기爲하야압흐로 江華百貨店을 新築코事業을 擴張하야 期待에 어긋러짐이 업도록 必死的努力을하는한便으로 江華物產組合을 今年度內로 內容과 事業을 擴張하기爲하야 增資함과 同時에株式會社로 組織을變更하고 生產販賣兩事業을 進行식히여서 躍進하는 江華產業界에 劃時代的成果를 세우라는 것임니다。끗흐로다못 여러분의 不斷의 指導와格別한愛護를바랍니다

織物工業으로본江華
躍進途上에선 江華產業組合
우리는 世界市場을 向해突進
江華產業組合理事 黃祐天氏 談

먼저 江華織物界의 過去를一瞥하자 江華織物은 年產六十萬圓이라는 好景氣時代를지나 產業組合創設直前에 잇서 年產二十萬圓으로 萎縮되여 一時悲運의過程을 밟고잇든것은 오히려 記憶이 새로워지는바잇다 이는 여러가지 原因도 잇스나 融資統制機關의 缺如로 因한 中產以下의 事業衰退에 基因된바가 크고 爲先織物原料絲購入에 잇서서는 中間商人의 搾取로 少數資本家의 壟斷事業에不過하야 中產以下階級의 苦痛의 的이되여왓든것이 큰原因인것을 如實히 證明하는바이다 產業組合創立以來 原料絲購買를 大宗事業으로 着眼함도 此에 因함이다 此를 原產地인 日本內地로 直輸入하야 購買의 緩和와 物價調節에 努力하는 一方 織物價格統制를 目標로 多數專門技術家를 採擇하야 銳意指導改良과 檢査統制에 盡力하야 今日에잇서 一般平工業의 全貌的特色을 發揮하고 잇는바이다。

事業擴張과 融資의緩和

從來의購買事業으로는 織物을 爲主로한 原絲購買를 비롯하야 附屬品機械器具等과 製品販賣에 局限하야왓스나 時代의 進運에 따라 產業組合 本然의 使命에 비최여 이로서 滿足을 不許하는바로 昭和十年度부터 事業의 擴張과 融資의 緩和를 企圖하기로 되엿다는데 購買事業으로는 織物用品以外에 一般農用品과 經濟用品까지도 購買擴張키로 되며 一般農家로서는 從來 組合利用에잇서 有形無形의 現狀이엿스나 今後로는 完全히 普通利用化될것은 勿論이며 融資에 잇서서도 從來의 購買 掛買資金으로 一人當 二百圓에 限하야왓스나 事業擴張과 生產販賣眼에 伴하야 購買品 掛買限度를 一人當 織物原料及 其他 購入資金으로 三百圓 一般營業及 經濟用品 購買資金으로 百圓式 各各 限度를 擴張키로되엿다 압흐로 一般營業者와 消費大衆의 本組合利用은 本格的으로 進行될것으로 一般의 期待가 크다 아니라 一方 施設事業에 잇서서도 副目的施設이 實現되게되여 今年 新規事業施設의 하나로 染色工場과 製品仕上工場을 建設케되여 벌서 基地 二千五百餘坪을 購入하얏스므로 느저도 今年 十一月까지에 工事가 竣成될터이며 工場設置에 伴하야 組合多年의 懸案이든 染色과 製品仕上도 自力으로 解決할수잇서 從來보다生產費가 훨신 低下될것은勿論이요 江華로도 一大曙光이라고 하겟다

販賣事業과 將來의展望

江華는 在來로 班布와 正綿紬의 特產地로 일즉이 이販賣를 行商靜座에 一任하여왓고 近者 時運의 變遷에 伴하야 人絹交織과 紡績麻布等를 改織해온以來 班布는 生產이 減少되여 거의 그存在를 이저벌일만치되여잇스며 販賣에잇서서도在來式을 踏襲하야온 關係上 아직 組合으로서 이러할 進行를 낫타내지 못하고 왓스나組合基礎도 確立되여 昭和九年度末에는 積立金이 五萬圓에達하야 全朝鮮無比의 好成績을 낫타내고 잇는만치 第一段事業의 過程을 지나 第二段事業으로販賣統制에 注力하기로되여 人員도 着着整備中에잇는바 爲先麻布를始하야 人絹交織等을 主力으로 對外特約販賣에 努力中이며 더욱 人絹交織은 外來人絹과 相異하야 獨特한 特異性을 가젓고 外來人絹은 純人絹絲로 織組한만치 質에잇서 甚히 어리고 洗濯에 不便이 만흐나江華人絹만은 人絹絲와 綿絲로交織되얏스며 品과 質에잇서 堅固하고 色彩도 鮮明함을 避한것으로 朝鮮家庭에 適切한 衣類인것이 長處이며 麻布는 在來麻布와 根本的으로 生產手工이低減되여 잇서 價格의 低廉과洗滌의 便利가 特色인바 從來의 販賣實績에 照하면 朝鮮家庭에 잇서서는 아직 品質의 全貌을 認識치못하고 空然히 外來品만 好裝하는 傾向이 濃厚하야 販賣上支障이不少하다 一般當業者로서는 압흐로 組合의 宣傳如何에 多大한 關心을 갓고잇다 이런點을 빗추워본다면 江華織物이 將來에 잇서서朝鮮人 生活에 適切性을 띄우고 잇는만큼 必然的으로 消費層이 增加될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인바 압흐로의躍進舞臺는 얼마던지 잇다고 自認하는同時에 우리는이商品을 世界市場에 까지 進出시길 覺悟가잇다 現在에도 蘇聯에서 日本으로 人絹을 注文해다 그量을 본다면 全日本生產量의 五分之一에 該當하니 우리로서는 이事實을 平凡히지나처 볼수는업는 事實일가한다 果然江華의 產業의 躍進은 이부터다

必然的事實에立脚한 江華精米界發展性
江華穀物協會會長 金根鎬氏 談

江華는地理上으로보아島嶼郡인만치 多少의不便을憾하는배업지안으나 歷史的으로나 生產地帶로서는內外가鑑賞를周知하는事實이다。

이제過般米 仁川을經由하야輸出되는正租의量을보면 年十五萬石餘라는적지안은數量을내이고잇다 이것의 從來現狀을보면 正租그것으로輸出되고말엇다 그러고 본직 江華는 오직生產뿐이요 加工的生產으로其形容을 볼수업든바 近日若干精米業者의地方的精米를行하얏슬뿐 其生產이多少잇다고해도 一部營業에不過하얏다 더욱當局의產米增產計畫이 잇슨後不絶로因한 殺價暴落의 一大痛棒은 地方精米業界의事實 그대로의 前途가寒心하기比할바안이엇다。

그러나 江華만은 全鮮的으로 副業品產地로 一位를占함은 누구나否定할수업는 事實인同時 엇지하야 江華의精米界만은이가티 閑散하기짝이업슬가가 吾人으로 가장疑心치안이할수업다。

過去의江華를 回顧컨대 李朝隆代에잇서 江華가朝鮮의門戶이요 集產地인同時百華物이江華를經由치못하고는配給되지못한程度이엿고 全朝鮮配給機를 한손에쥐엿던榮華時代를 背景한 江華에 [illegible]

蔘業界王座를目標 우리組合은邁進
江華人蔘組合 組合長 張吉煥氏談
(一九三四年度末現在)

元來人蔘이라하면 누구나 開城의 高麗人蔘을 聯想하는만콤 高麗人蔘은 果然 우리漢藥界에잇서 氣業의 祖宗으로 數百年以來 自他가 崇拜하야 其聲價가 海內外에 播揚되는 同時 一種의 神物로 認定하야 外他地方에서는 栽培할念願도 두지못하얏든바 近代科學의 發展에따라 但히 開城等地의 獨栽物이 안이라는것을 覺悟하는 同時에 本郡에서도 有志間에서 試栽하야본結果 其成績이 高麗人蔘에比하야 조곰도 遜色이 無함뿐더러 其品質이나 藥效果에잇서서도 反히 優秀하다는 用藥家의 評判이 蒸蒸하게됨으로 斯業의有望함을 確信하고 昭和六年六月二十五日에 本組合을 創立하게된바이라 爾來 各組合員의 努力과 組合理事者의 指導에依하야 本年八月末現在組合員은 十五人 耕面積은 本圃四〇七四三坪 苗圃一、八四五坪에 達하얏스며 압흐로 每年 少不下一萬坪內外로 繼續栽培하기로 所轄 專賣局과도 打合하야 着着邁進하는 中인바 本蔘業의 運은 實로 前途에 揚揚한 旺히 날로 隆昌하며 따라 江華產業界에 밋치는 生色이 크다할지라 江華人蔘이 世界市場에의 產物만 부러워할것이 안이라 沁都의 四千載 歷史產業櫃의 한페지를 燦然히 빗낼것을 豫期 欣賀하는바이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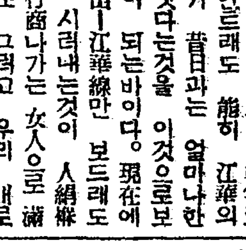
우리森信汽船은 產業發展에先鋒格
森信汽船社長 金鍾燮

우리 森信汽船이 創立以後 오날까지의 過去를 본다면 놀나지 안흘수가 업다 그當時에는 단한對岸밧게 안되는 不過 二十郡內外의것으로 能히 客과 아울러 貨物을 取扱하고도 足하든것이 現今에 잇서서는 우리 會社의 所有船이 十餘隻에 모다六十噸級以上이것만 그것도 不足을 늣기어 할수업시 今年十一月부터는 一百二十噸級의 배를 또짓기로 되엇스니 數字로 따저보지안는대도 能히 江華의 貿易關係가 昔日과는 엄마나한 差異가 잇다는것을 이것으로보아 證明이 되는바이다。現在에 잇서 龍山—江華線만 보드래도 每日가티 시러내는것이 人絹檞짐이오 行商나가는 女人으로 滿員일다 또 그러고 우리 배로 第一 큰 짐이 오는것은 모다 產業組合行인것을 보아 江華의 產業生產은 얼마나한 躍進途中에 잇다함을 窺知할수잇는 事實이다 現在 우리 會社에서 直接關係가잇는 叺에잇서도 昭和九年度에 一百五十萬枚를 사드려다 十年度에도 大略 치고라도 三割內外가 增産될것은 近日生產枚數를 보아 그러하다。그러면 五、六十萬枚에 不過런 江華叺에잇서 어만한 數量을 供給한다 함은 產業江華를 如實히 말하는것일다。더욱 今般에 朝陽紡織의 出現은 一大慧星이라고 볼수 잇는바이다 此際에 잇서 언제나 물을떠나서 고기가 살수업는것과가티 產業을助長함에는 完全한 交通網이 必然的으로 要求되고 또發展의原動力이되는것이다 이런意味에서 우리森信으로는 언제나 萬全을 긔하고저하지만 漸漸消長해지는 江華產業界에 今日의 現狀을보아一層 責任感을 늣기게되는것이다 昨年度에잇서本社를 通하야 大略의 輸出入을 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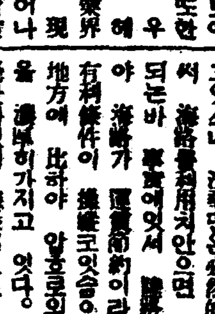
移出重要物貨
一、米穀物 八十七萬圓以下均
一、人造絹 十三萬圓
一、[illegible]大豆雜穀七萬圓
一、工業用原料 一萬三千圓
一、海產物 二十三萬圓
一、叺 十萬三千圓

輸入貨物
一、人造絹絲及其他 三十萬圓
一、納絲布木 五萬圓
一、肥料農具 四萬圓
一、日用雜貨食料品 二萬圓
一、建築工業用品 一萬七千圓

以上과 가티 我社에서만보아 輸出이 예想이라고 볼수잇다 多端한江華產業界에잇서 刮目할事實이 압흐로 만흘것을안다 이런意味에서 우리도 新造船을準備코 江華產業의 助長運動에先鋒者되기를 自處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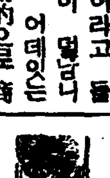


江華商界展望
商業協會主任 金翊來氏談



江華의 商界로본다면 現在에 잇서 封建時代의 遺物그대로한대도 適切하게지요 좀더 장사군가 흔맛이적고 商店이라고 들어서면 商店가른氣分이 덜납니다 그러면 그原因이 어데잇는가 追究한다면 本格的으로 商人의 素質問題에잇다고 하겟습니다 그러기때문에 紳士가갓을便이니가 自然的으로 發展性이 적다고 보입니다 그려고 都市模樣으로 統制하는 機關이 업기때문에 職業이엇습니다 이런點으로보아 江華의 商界가 압흐로 發展을 하자면 무엇보다도 統制機關을 만들고 商品價格의 調定이라 더가 時期가 지난商品의 處分方策이라던가를 研究케하야 時代에뒤지지안토록 努力할것이 必要합니다 勿論 압흐로의 發展될여러가지 條件이 江華에는 豐富하다고生覺합니다

元形의朝鮮을 말하는찹쌀술



江華에는 釀造하는곳이 八個所가잇다 그中에도 代表的인江華釀造株式會社 四十五度의 燒酒와 乾酒로有名하다 이곳釀造米는 찹쌀로서 果然元形朝鮮을 차저볼수잇는 古來의 傳習한手法으로 釀造한술이다 燒酒뿐이안이다 百日酒 乾酒、濁酒藥酒가 모ㅣ다 입치이맛보기드문술이다 이제金根鎬氏가 社長全部引受하야 取締役社長의 자리에 안젓스니 그의獨特한 敏腕으로서의 運轉과釀造法의漸進的改良은果然愛酒家의焦點이되여잇다

江華漁業組合 僅僅生氣作興

江華의 四十萬圓이라는 漁獲은 누구나 否定치 못한다 이리하야 西島漁組가 發祥되엿고 一躍區域을 擴張하야 江華漁業組合으로 堂堂한 出生을 하얏다 創立初任理事로의 李德馨氏는屈曲업는 努力을 액김업시發揮하야 僅僅漁村의 生氣를 作興시키고잇다 한便으로 共同販賣所와 乾蝦作業場 改良捕漁船等을만들엇고 每日가티 山積한漁物을衛車로 京城漁市場에 出荷하는等果然 文字그대로의 躍進中의漁村을建設코잇다

金組를通해본 江華의經濟界

江華金融組合	人員	[illegible]名
貸出高		[illegible]圓
預金高		[illegible]圓
溫水金融組合	人員	[illegible]名
貸出高		[illegible]圓
預金高		[illegible]圓
每人當	貸[illegible]圓[illegible]强 預[illegible]圓[illegible]强	
郵便貯金	三個所	[illegible]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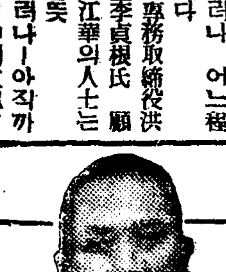
製品업서못파는 硝器組合幸運

江華硝器組合은 그創設은昭和六年이나 實은그前身이라고볼수잇는 現組合理事黃燦周氏의손으로 河岾方面에서 大正八年頃부터始作한 在來式水甕 甁其他의 여러가지窯業은 오늘에江華硝器組合의產母라고볼수잇다 아직도 이方面에事業을繼續하는곳이 五個所나잇다 이리하야 江華硝器組合은 自然的으로原料品이 豐富한惠澤을입어昭和六年부터 燒酒甁製作을專門으로하야 朝鮮內에서消費되는 燒酒甁을全擔할計劃을세우고 邁進한結果 現在에는 굿은가마(釜)를十一個나增設하야 一回구워내는數量이 約一萬個를 超過하건만 物件이업서 못파는形便일다 이리하야日本內地로부터 輸入되던것을 完全制止하고 江華產業界의 가장幸座를獨占한感이잇다 압흐로도每年每年工場을擴張할것이며 이곳의 工人들은 一日金二圓以上의收入이된다고한다

알고십허궁금한 朝鮮重役椅子

이는風聞이다。 그러나 어느程度까지 確實性이잇다 社長 洪在默氏 專務取締役洪在龍氏 取締役監査李貞根氏 顧問辯護士辛泰嶽氏 江華의人士는 參席이 別로 업슬뜻 이것이한遺憾—그러나—아직까지 手續이未完 十月中創立總會가 잇슬뜻 그러나 株主가 모ㅣ다 家族人物이라고

江華郡守 趙允顯氏 談



產業江華를 말한다면

產業江華을發刊함에際하야 吾人은滿腹의 祝意를表하는바입니다。江華라면내자랑갓습니다만은 洪코내자랑이안이고 全朝鮮에자랑임에 祝意를表하는本意가 그곳에잇다고 生發임나다。 좁은紙面에잇서 多方面에亘한말삼을 드리기어려우나 한미두로말삼을하자면 江華는 월하는 『사립이씀을 完成식히는』 곳이라고 말삼드리고싀습니다。江華의 花紋席, 江華의 麻苧布, 江華의人絹, 江華叺이는말삼치안드래도 自他가 共知하는바입니다 躍進江華의 產業은 바아효로 家勢族을 월우와、調에 業界와繁榮한 歷史을갓고 그의 先進者겨될것을맛고 이에맛나아다。

朝陽紡織株式會社

江華에朝鮮初有의 大織物會社가出現
洪在默、洪在龍兩氏가 五十萬圓을投資

洪在默氏

朝鮮에잇서서아직까지人絹으로써純眞한會社의出現이아직것例를볼수가업섯다 따라 純全한 우리의 게레 로써 모이여서 이가튼 大資本에 出資를하고 事業에着手하는 數를 손으로 헤일만한 現在朝鮮에잇서 朝陽紡織의 出現은 自他가 모ㅣ다 그前途를 울으러 불뿐만 아니라 그地帶가 織物로써 알이워진 江華에 잇슴에 더욱 前途가 燦然하다 또한 오날까지 默默히려를가다듬고 잇든 洪在默 洪在龍兩氏의 全擔出資임에잇서 그의 將來는 우리가 헤아리기에 足하다 現在에잇서 江華에 人造絹을 通하야 年百萬圓의 生產을 보고 잇는이것이 外國에서 輸入되는 純全한 人絹이아니고 朝鮮사람에게 가장適切하도록 綿絲를 너어서 交織을 하무로 가장튼튼하고 持久性을 띄고잇슴이 特色이다。이것이 從來에 잇서는 手織機에만 限하야 生產되무로 多少의遜色이 업다고 볼수업슴에잇서商品으로써도 遜色이 全無타고 할수업스므로、이에 着眼하야 나市場에 進出을 하드래도 商品으로써의 遜色이업시 質量兩方面에 잇서 江華만히그 特色을 보일수잇도록 產出을식힘에 最大目的이잇다 只今까지는 特有한 現像에한아로써 隊商式으로 出賣하던것을 안저서도 其聲價를 넓히게됨도 다만 朝陽紡織으로써의 最大使命이 되여잇는 現像이다。事業에잇서 麻苧布및染色은 이또한 朝陽紡織으로써의 生命일다。아직도 完全한 出生의聲을 내이지안은만큼 久遠한 事業을말할수는업스나 現在에잇서 工場의 一部가 完成되여잇는 形便이무로 敬賀하야 마지안으며 洪在默 洪在龍兩氏의 資本이 原動力이됨에잇서 全朝鮮에 밋치는 效果도 刮目할만한 程度에밋칠것이다 더욱뿐이라를 設備치안코發電機를設置하야 가장衛生的이고現代科學的으로써모ㅣ든것을움직임에잇서 果然文字그대로의 能率과商品으로의가장 完美코特異性을띄운朝鮮사람으로의 獨點치안으면안될 衣服거리가 斷然商頭의 全勢力을擴張할것은 疑心업는事實이될것일다。이에 우리의寵愛의焦點이 朝鮮紡織에모임에잇서엇으러진업씀을끗흐로비는바이다

竣工된工場一部

洪在龍氏

★花紋席짜는光景

全朝鮮男女專門學校音樂콩쿠울을 앞두고서 ③

이번『콩쿨』을機會로 우리樂壇萬歲！

우리朝鮮에도 音樂『콩쿨』을 開催케된은 萬히깃븐일입니다 나는聲樂部門의 審査員의一人으로 今番『콩쿨』이 우리朝鮮樂界에 보내는 使命과意義 將來朝鮮樂界에對한 所感을드리나이다 우리

社 會와 音樂藝術은 그 關聯性이 얼마나 重大하다는것은 말슴할것도업지만

이미 우리樂壇의歷史가 오랫엇슴에 그實로나 數으로나 發展의狀態가 沈滯되여섯슴은 重言을不要하는바입니다 卽 우리音樂藝術家는 오날까지 너머나 個人的立場에서 아모런 社會的으로 音樂藝術의 眞使命을 諦하지못한것만은 事實이며 우리旣成樂壇은 그發達經過로보아 너무利己主義的이엇음은 甚히 遺憾인同時에 이러한 矛盾된自體가 時間을 經過하는동안 自己의 醜態를 엇게된것만은 事實입니다 卽우리는 旣成樂壇으로서 가장큰

問 題인 後輩養成이란것이 처음임에도不拘하고 今日까지 忽從하얏슴에 스사로 붓그려움을늣기며 關心으로서 後輩養成을 눈뜨게되는今日 多年히 朝鮮日報의 이번事業과相携하여 이大事業을 實行케됨은 實로痛快한일입니다 우리社會와 音樂藝術을 聯絡식히자 現役으로 現狀만을 維持하다함은 至極히 愚論인 同時에 우리의 일은 참으로 새로운 일군을 낫는것이 큰일입니다 이러한見地에서 于今것우리朝鮮에는 크게斯道에 才質을가진 많은才를 두고도 現在朝鮮의 現實로서 到底히 그갈길을指導하지못하얏스니 一生을맛치겟다는才士를 우리社會에 公定으로 推薦하야 그갈길을 더욱 明白히하는 同時에 우리

樂 壇에 新進을適當히내여서보내는것이 現役에잇서서도 一種의自己發展을 하는데에 一層使命이 큰일입니다 우리는 一年에 一次式 여러의 참된音樂人을 우리社會에 내보내며 그에努力을 助長식히여서 우리朝鮮의 精神文化에 秋毫의 도움이라도 되다면 얼마나 깃분일이지모르겟습니다 이러한意味에잇서서라도이『콩쿨』은그 커다란使命이 잇는것이오니 단지一種의 音樂競演이란 文句만으로는 오히려 아모意味가 업는것입니다 우리民族性은 獨逸과 달으고 伊太利와갓해서 音樂的 感은 組織的이아님으로 冊床과 씨름하는것을 조화하지안는故로 聲樂工夫보담 聲樂을하고십허 함은 自然性이잇습니다 日本樂壇에서도 以後十年以來로는

聲 樂界는 全部우리同胞가 占領하리라는 豫言이 잇습니다 朝鮮民族性은 民族的氣質性이 稀少함으로 恒常 노래하기를 조와하고 귀(耳)가 발음으로 新聖才能는 世界中 稀한 太陽民다운은 우리朝鮮人이라합니다 故로 世界서 猶太人이 音樂界로서 第一位를占領함은 귀가밝아 音樂的이라할수잇습니다 나는 生理學者가아니여서 斷言은못하나 우리는 聲帶와 목이 世界中 아마伊太利人 맛찬가지로 참말조흔목서이 만흔은 事實입니다

朝鮮語란것이 日本말、英語와달라서 自然히 목울열어서 말하기때문에 自然히 天性的으로 어렷슬때부터 自然히 發聲法에 適官한지도 모르지요 또는 어音과 으音이 만흔까닭에 伊太利人이 電車를타거나 어데서든지 너무 시끄러워서 英、米人들은 비웃고 점잔치 못하다고 합니다 事實 우리가 日本서나 朝鮮서나

電 車 或은 汽車를타면 큰소리로 말하기때문에 시끄러운일이 만흔은 天然的으로 목울열어서 말하기때문인가합니다 또는 氣候土地가 非常히 聲樂的이라할수잇서서 朝鮮晴天이란 世界에 第一조흡니다

卽 목지가적어 聲帶로서 氣管으로 共鳴함에 至極히 좃습니다 幼少年時부터 고초가루를 만히먹기때문에 喉頭가 퍽 强靭하야 목병이 잘안나는가봅니다 故로 聲樂家는 刺戟物을 만히使用함이 比較的良好한데가잇습니다 伊太利 西班牙人들은 比較的 매운것을 食物에 만히 使用하나봅니다 또 伊太利人은 잠을 만히자나봅니다 우리도 잠을 만히자는것이 伊人과갓습니다 伊人이 世界的으로 熱情家가만흔가티 朝鮮사람에는

伊 人以上 熱이더만습니다 故로 우리도 環境과 富의水準 文化가 놉하짐을 따라 伊人以上으로 世界聲樂國이될을 斷言하고 豫言합니다。今番 朝鮮日報社主催『콩쿨』의審査는 以後偉大한 理想下에서 可及的審査를 嚴重히할豫定입니다 또는 以後朝鮮을 聲樂國으로 世界에發展식히기 머지안흘것을確認합니다 朝鮮聲樂壇萬歲！ 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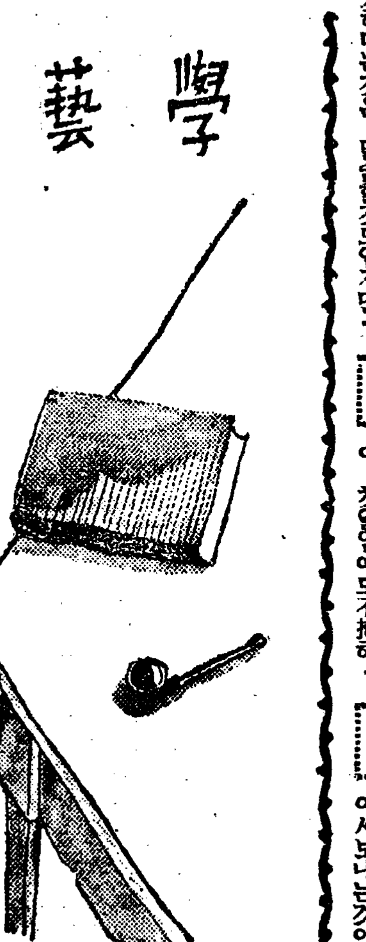
聲樂部審査員 金文輔

學藝

現代哲學과『人間』問題

—特히『루넷산스』와의關聯에서—

⑥ 朴致祐



自然科學的 또는觀念論的抽象에 잇서서는 時間과 空間은 普通相互獨立한 두개의 範疇를차지하는것이나 그러나 問題가 우리와가티『實踐』을 싸고도는限 이兩者는 決코 그가티 손쉽게 分離될수는업는것이다。

實 踐的時間은 地球의公轉을 規準삼아 分割記列된 그러한『主體性』을 缺한 時計的時間도아니며 이와同時에 또는『베르손』의所謂 純粹持續과 시의時間—例컨대 現象學的時間 體驗(意識)內容의 持續樣式으로서 가튼 그러한『客體性』을缺한 時間일수는업다 實踐的時間은 그것은 勞働을通하야 自然이 내것으로變革(生産)되며, 이自然의 人工的變革을爲하야 頭腦와意識이 驅使되는 그러한 主體客體的인 時間인것이며, 그러기때문에 空間을처음부터 本質的으로 內包하고잇는 時間인것이다。그리고 實踐的空間도 또한 幾何學的空間 物理學的空間

天 文學的空間과가튼 그러한『主體性』을 缺한 空間일수는 업는것이며 이와同時에 心理學的空間 現象學的空間과 가튼 그러한『客體性』을缺한 空間일수는 업는것이다。그것은 實로 自然의 人工的 變革이 그우에서 遂行되며 頭腦와 意識이 그우에서 展用되는 그러한 客體主體的인 空間인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本質的으로 時間을 內包하고잇는 空間인것이다 時空의 辨證法的 統一이라는 理論的으로는 極히 어려운問題도 實踐 特히 生産的實踐에서는 原始的所與로서 모-든 理論以前에 顯現한 事實에 屬하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歷 史的時間 即 歷史生成的時間과 社會的空間即 社會形成的 空間은 決코 分離하야 생각해서는 아니되는것이다 歷史란 結局 社會의 時間相에 不外한것이며 社會란 結局 歷史의空間相에 不外하기 때문이다。人間的實踐——生産的 政治的 道德的 實踐等——이가지는바 主體와 客體와의 具體的인 全體로서의『現實』이 보담더 時間의 角度에서 보아질때 그것은『歷史』라는 形態로나타나게 되는것이며 보담더 空間의 角度에서 보아질때 그것은『社會』라는

形 態로서 나타나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우리에게 잇서서는 언제나『歷史的社會的』現實만이 참된『現實』인것이다。우리가 우에서『現實的』이라는 述語代身에 종종『歷史的社會的』이라는 合成單一語로 이에 代用할수잇섯든것도 이러한意味에서만 容許되는것이다。나는여기에서 나의 一生을 밧처도 오히려不足할 이러한 時空論을 展開하려는것은아니다。나는 다만 우리가 말하는 純粹人間은 時間과空間을떠난人間을 意味하는것이며 이때의 時間과空間이란 實踐的時空만을 意味할것이며 따라서 純粹人間이란

結 局 우리에게잇서서는 歷史的社會的現實을떠난人間을 指摘하게되다는點을 말하고십혓슴에 不過한것이다。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純粹人間의 構成條件은『有閑性』인것이다。그러나『昨日의有閑』이나『明日의有閑』이 純粹人間을 만드러내다기보담도 事實은 根元的으로는『今日의有閑』即『有閑한今日』만이 만드러 내는것이라고 보는便이 妥當한見解인것갓다。우리가 엇던사람을 有閑人이라고 부를때의 그사람은 반드시『有閑한今日』을 가진 사람만을

指 稱하기때문이다。사람은 누구인들 明日을 꿈꾸려안할만하기를 질기리오만은 그러다고 完全한有閑『도 또한 견듸기 어려운 無氣力한生活임에 틀림업는것이니 이러한 有閑한 今日의 無氣力함을 消散식히기爲하야 만드러지는것이 다름아닌 純粹人間인것이다。

初期新興市民人은 그러나『明朗한明日』이 約束되엿섯음에도 不拘하고『無聊한今日』때문에——卽 封建勢力과의 싸홈에 寧日이 업섯던關係로 아직 이러한 純粹人間을 構成할 겨를이 업섯든것이다。그러나 漸次 安定期에 드러서자 이

惡 習이 비로소 나타나기 始作하엿든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安定期의 有閑性이 지여낸 純粹人間을 特히 獨逸理想主義의 樂天的 浪漫的인人間觀에서 가장 典型的으로 볼수잇는것이다。그러나 安定期를 지나 漸次로 下向의 길을밟게되자 이러한 樂天的 浪漫的人間觀은 자최를 감초지아니치못하게되엿것이니 이러한 下向期의 有閑性이 지여낸 純粹人間을 우리는 오늘의 所謂 實存哲學의 諦觀的絕望的인 人間觀에서 차저볼수잇는것이다。『樂天的浪漫的』對『諦觀的絕望的』이라는兩者의 性格的差異는 安定期와 下向期라는 兩者의 時代的背景의 反映이라고 못할것일까? 前者가『明朗한明日』을 가진

有 閑性의 作品의 所産이라면 後者는『憂鬱한明日』을가진 有閑性의 脉膊의 所産이라고 못할것일까?

새로운 人間타입에로의 實止揚은 그러나 다만『無限한今日』과『明朗한明日』을 가초아가진 사람의 손에依해서만 可能할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先例를밟을必要가업시 저 初期市民人그들이 바로 이러한 今日과明日을 가젓든것이아닌가? (完)

紀行

史의都江華 (1)

湖岩

江華는 史의都로 詩의都로 또는 財的都로 그이름만 들어도 幻가티 아름답게 憧憬이된다 멀리는 檀君의 遺跡을 비롯하야 高麗의 四十年동안 서울이 되엿과 三別抄亂의 爆發이되엿과 李朝에 드러와서 丁卯胡亂의 會盟과 丙子胡亂의 陷城과 각가이는 일은바 丙寅洋擾와 辛未洋擾이며 雲揚號의 砲擊과 朝鮮開放의 丙子條約이 모다 이江華를 舞臺로삼아 成立된 歷史上 大事件들이다 아득한 녜일은 덥허노코 高麗以來로만 보드라도 이江華가 半島에 잇서서 엇마나 重要한 任務를 하엿든가 高麗의 大國難인 蒙古의 侵入에 對하야 高麗의 朝廷이 長期抗爭을 繼續한것은 江華의

天 險을 最後根據로 삼앗슴이며 이것이 延하야 當時隣邦인 日本에게까지 貢物致訓을주게되엿거니와 그後 高麗가 勢窮力盡하야 蒙古와 和親을 講할새 氣質잇는 高麗武人一派는어대까지 濟州의 小島로써 天下大勢에 逆行하야 屹然히 獨立을 國한것은 江華의 悲壯한血史이다 兩次胡亂으로 말하면 高麗적부터 滿洲와의 交涉이 이때에 이르러 彼勝我敗의 形式으로 決算을 짓게되것이데 여기에도 江華는 中心의役割 또는 最悲慘한慘禍를 입엇스며 特히 兩次洋擾는 近代朝鮮이 저東進하는

西 勢와 衝突을 일우킨 擾亂이오 雲揚號의 砲聲은 西漸하는 東力의 發露하는 兆朕이라고 볼수 잇는바 西勢와 東力이 거의 때를 前後하야 이 조그만 섬에 最初의 史的발자취를 머물게 된것은 奇異한 現象이라 할보담도 海上에 集注하는 十九世紀 宇內進運의 特徵을 反映시킨것이라 하겟다 江華島는 五大島中에 잇서서 그 面積이 가장 狹小할망정 位置는 黃海의要衝이오 京江의咽喉이니만치 實로形勝의地임을 알어야 하겟다 近日에 와서 사람들이 목하면 植物의

寶 庫인 濟州島를 자랑하지마는 나는 史蹟의 淵藪인 江華島를 자랑하고 시프다 말하자면 濟州島는 南海上에 멀리떠러저 잇기때문에 植物界의 別乾坤을 일우엇스되 가티 江華島는 國都에 각가이 노혀 잇는때문에 歷史上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것이 아닌가 江華의 이름이 歷史上에 크게 빗나기는 半島政治의 中心點이 漢津江과 漢江의流域에 잇슨以來일로서 近代에 올수록 江華라면 거의 世界的으로 알려지게 되엇다 그러나 江華의 地理的價値는 天險에 잇다 그位置가 아무리

國 都에 각가웟지라도 大江으로 一面을 隔하고 大海로 三面을 에운 險絶한곳이 아니면 決코過去에 보든것과가튼 江華歷史는 成立되지 못하엿스리라 靑華山人 李重煥은 일죽 그名著인 擇里誌에 痛歎하엿스되 廟의命으로 江華留守金慶徵이 江岸에築城할때 土石을가지고 泥濘을 메것습으로 沿江四十里에 곳곳이 船舶을 댈수잇게되어 江華의 險阻가 減殺하엿다고 하엿다 그러나 이는 木船으로 來往하든 녯날일이라

鐵 甲艦이 縱橫하는 海洋交通時代에 와서는 江華의 天險은 도리어 自由通路가되고말앗다 터구나 蒼空에까지 飛行機의 翺翔이 열리게된 오늘날임이라 現代江華는 그 地理的天險을 아주 喪失하야 버렷다 이로부터 江華의 歷史는 方向轉換을 아니할수 업다 이것은 거의 人文의 進化로 생겨난 自然의 征服이 그러케 함이다 京城通路인 甲串나루에 橋梁을架設하려는 計劃까지 잇다하올드러거니와 이것이 實現되는 날이면

江 華는 일층더文化上 軍事上 經濟上할것업시 여지것 가지고오든 特徵이 消滅되리라。

作家·評家·讀者 (五)

金煥泰

이곳에 批評家가 文學的 生産過程에 잇서서 直接으로 敎師의 役割이 아니라, 産婆의役割을 하게 되다는 것을

蔑 視할作家나 또는 不名譽로알을 批評家가 잇슬는지도 몰으겟다。그러나 直接 갈이될수잇는知識에잇서서도 敎師이기 보다도 産婆이기를 바래고 또그리冒言할 소크라레쓰를 蔑視할수 잇는作家나 評家는 몰으겟스나, 그러치안흔 作家와 評家일진대 조곰도 그를蔑視할수도 不名譽나恥辱으로 알을수도 업슬것이다。

自己의 容貌의 美醜를 알라면은 面鏡이 必要한것과가티 作家가 自己作品의

眞 價를 알라면은 그곳에 또한眞正한 批評家가要求된다。

이리하야모리에-르는나 白樂天가든사람은 그들의 作品을老婆의게 읽혀들렷다。勿論 그들이 作品을 읽혀들녀준 그老婆들은 眞正한 批評家는 아니다 그러나모리에-르나 白樂天이 老婆들을擇한것은 그들이擇한 老婆들은 低級한 批評家와가티 偏見과 先入主觀이업는 眞正한 批評家에갓가웟다고 하여서일것이다。그럼으로 그들의입에

偏 見과先入主觀에中毒되지안코 가장 놉흔 文學的教養과 訓練이잇는 眞正한 批評家가잇섯습진대 當然히 그를擇하엿슬것이다。

이리하야 가장 雅量과 謙遜한마음을가진 作家만이 批評家의 批評에귀를기울임으로써 배호고 도움을 어들수잇는것은 贅言을要치안는다。

그럼으로 批評家를敎師로만드는 사람은 오로지 謙遜한마음과藝術良心을가진 作家그사람인것이다。이제 더나아가 批評과創作이 가장圓滑이合作하는곳에서만

偉 大한 文學作品이 産出될수 잇다는것을 그리고 眞正한批評은決코 創作을, 害를끼치지안는것이라는 것에 論證하기爲하야 長皆한 說明을 試할것업시 佛文壇과 英文壇에서 그의 例를들어 證明하여보자。

佛蘭西는 멀리『라브레』以來로 어느나라보다도 가장批評이 發海온 나라다。그러니 萬一批評이 우리文壇의 어느作家들이 생각하고 잇는바와가티 害만끼치는것이라면 佛蘭西文壇은 오늘날 文學的

廢 墟가 되고말앗슬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어느나라에도 못지안케 燦爛한 文學遺産을 所有하고 잇스니 그는무슨까닭이냐?

新刊紹介

◀三千里◀九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發行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二十二錢 (送料五厘)

曆

九月十一日(水) 舊八月 乙酉(大)十四日 庚寅·木·參·執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十日(火曜)

◇午後六時 童謠獨唱 一、수만 三、중홀다리 三、고향의봄 四、중당풍당 五、하모니카 六、물목대장 洪蘭坡作曲 七、춤추는落葉 八、갈매기 九、저미마종 十、時計노래 十一、섯달그믐 十二、汽車 洪蘭坡作曲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中央保育學校生徒 指揮 洪蘭坡 伴奏 金元福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無化果 金鎭浩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古蹟愛護日을當하야 嚴昌燮
◇同八時 平時調外 一、平時調 二、襄陽歌 三、방아打鈴 四、梁山道 五、靑春歌 六、노래가락 玄山玉 細笛、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 玄琴 李彦稙 洋琴 李承燦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燮 細笛 趙敬鵬 杖鼓 李童夏
○同九時 連續怪談 黑心(二) 庚秋岡

十一日(水曜)

◇午後〇時五分(東)和洋合奏 松竹管絃樂團
◇同二時 衛生講座 漢方藥과腸窒扶斯豫防 趙憲泳
◇同六時 라디오世界一週修學旅行 京城으로부터滿洲國(一)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內鮮人의信仰生活槪觀 田中德太郎
◇同七時三〇分 趣味講話 [?]과東洋文學 李殷相
◇同八時 피아노獨奏(레코-드演奏) 一、月光소나타 C샤-프短調作品二七第二地…베-토벤作曲(켐프) 第一樂章 아다지오 第二樂章 알레그렛토 第三樂章프레스토, 아지타-토 二、夜想曲 E플렛트長調作品九第二番…쇼팡作曲(브라일로우스키) 三、夜想曲F샤-프長調 作品十五第二番…쇼팡作曲(크로이차)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李月色金錦桃 大笒 金永根
◇同九時〇分 映畫이야기 虛榮의都市 李愚興

十二日(木曜)

◇午後〇時五分(東)今日프로그람發表 獨唱과室內樂 獨唱 奧田良三 鈴木콰르텟트
◇同二時·趣味講話 文藝에나타난白石 李軒求
◇同六時 라디오世界一週修學旅行 京城으로부터滿洲國(二)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라디오學校 仲秋古事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副業講話 野生藥草採取에對하야(一) 都逢涉
◇同八時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仲秋名月의저녁 柳京의名月實況 1平壤牡丹臺下大同江畔으로부터中繼1
◇同八時二〇分 特輯라디오風物詩 八月佳俳全二景 李雲芳作 라디오·포레이·미-링 演出……朴珍 效果 金聖雲
第一景 場所 어던시골 때…八月十四日 (配役) 相鉉(小地主)……李素然 崔氏(그의妻)……卜惠淑 相鎬(相鉉의아우)……尹星說 氏(相鎬의妻)……金仙草 相鎬(相鉉의아우)……金聖德 相鐵(相鎬의아우)……徐月影 乙順(相鐵의누의동생)……姜石燕
第二景 場所……漢江附近 朴靑行 時……八月十五日밤 (配役) 麗澤(詩人)……徐月影 鄭靈(音樂家)……卜惠淑
農家의父(農主)……李素然 事一(백사공)……尹星說 事二……朴靑行 事一의妻……金仙草
七竈이……金[?]
◇同九時 農夫歌 一、報念 二、大字뻬이 三、農夫歌 丁九燮 吳大石 金世俊 鄭相賢 金德守 金秉燮

黑風 【125】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10

『감사합니다』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도라서 나오는 창순의 가슴은 양자강의 흥겹보다도 만하얏다 그제야 자기가 살어난 보람이 잇는듯하얏다 그리하야 벙끈 남어지의 쇠약한 얼굴에는 생기잇는 오숨이 떠도랏다 창순은 진정한 오숨을 우서보기는 일생에 처음이엇든듯하얏다 창순은 병이 완전히나으면 미국으로 가서라도 왕한을 맛나보겟다고 생각하얏다 또는 자기는 영원히 왕한을 사랑하되 사랑할수가업게되는 때에는 무엇으로든지왕한을 위하야 일생을 희생하겟다고 결심하얏다

창순은 날을따라서 몸이회복되므로 고향으로 도라가라고생각하얏다 창순은 인사겸 작별차로 홍겸을 차저갓다

『인제는 행보하시기가 어렵지 안습니가?』

하는 홍겸은 처음으로 자기를 차저주는 창순에게 대하야 만족한듯이 깃버하얏다

『선생님의 덕택으로 사라낫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분수밧긔 은혜를 바다서 그은혜를 무엇으로 갑흘는지 모르겟습니다』

하는 창순은 진정으로 미안한빛을 띄엇다

『천만에 은혜라니오 나는 창순씨에게 은혜를 베푼일은 업습니다 나로서는 창순씨를 구호하기 위하야 힘을 쓰지아니한것은 아니지만 그것은창순씨에게 대한나의 의무(義務)입니다』

창순은『의무』라는 말을 듯고 마음이 이상하야지며 가슴이 가벼웁게 울넝거렷다

『선생님이 저에게 대하야 무슨『의무』가 잇겟습니까 특별한『자선심』이시겟지오 그러한 자선심의 밧게되는 저는 감사하다고 하나니보다부끄럽이 만습니다 저의힘으로 하야 선생님의 은혜를 갑흘사오나 본래 구차한형편이라 시간의 조만은 단정할수가 업습니다 그것만은 용서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창순은 홍겸의 은혜를 동으로 갑는다는것을 의미하얏다

『은혜를 갑는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지 모르겟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은혜라고도 생각지 안키니와가령 그것을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창순씨에게 보수적(報酬的)으로 밧으라는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나는 창순씨를 사랑합니다 남은것은 창순씨가 나를사랑하너냐 안너냐가 문제입니다』

하는 홍겸은 자기의 뜻을말할 기회가 되엿다는 듯이 잇는 어조로 말하얏다

그말을 드른 창순은 얼골이 붉어지고 가슴이 무너지는듯하야서 무엇이라고 하여야 조흘는지 알지못하야 한참 주저하얏다 창순이가 홍겸의 도음을 밧는동안에 여러가지 눈치로 보아서 홍겸이가 자기에게 야심을 두는것을 아조 모른것은 아니엇스나 마침내 그것이 형식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새삼스럽게 놀나지 아니할수가 업는것이엇다 그리하야 창순은 대답이 업섯다

『왜 말슴을 아니하서요』

하는 홍겸은 궁금한듯이 재처 무럿다

『글세요 감사하온 말슴이나저는그러할 형편이 못됩니다』

『형편이 무슨 형편이야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잇습니다 때는 느젓습니다』

여러말을 할것업시 대번에잡어떼것다고 생각한 창순은 두눈섭이 위으로 솟치는듯 하면서 조금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얏다

홍겸은 전일부터 창순에게 대하야 자기는 돈이잇고 권세가 잇다는것을 기회잇는대로 말하얏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창순의 환심(歡心)을 사고 한편으로는 창순의 기운을 누르자는 것이엇다 그뿐아니라 돈과 마음으로 창순에게 은혜를 입혓스므로 자기의말이 입밧게만 나가면 창순은 거절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사히 승락하리라는 실분의 자신을 가졋섯든데 창순이가 간단한말로 냉담하게 거절하는데는 락망과 분노(憤怒)가 함께 이러낫다

仁川柳町二七 鷄林釀造場 宋斗厚

內可公立普通學校

江華合一學校

江華郡廳
江華人蔘組合
江華漁業組合
江華穀物協會
仁川穀物檢查所江華支所

江華醫院 公醫 閔載敬
救世醫院 院長 權遙翰
漢西醫院 院長 禹弼舜

和信連鎖店 江華百貨店 電話30

富屋洋服店
三星洋服店
華城商店
溫水商會 金潤順
松海醸造場
東昌醸造場
溫水郵便所 金永植

ウテナ 우데나 バニシング 雪印 クリーム 크림

殘暑의끄름豫防에

빗이히고속살부터美麗하게된다

純白·無脂肪

東京本舗 久保政吉商店

10.9—2.1

可恐! 嗜眠性腦膜炎 平原郡下에도猖獗

東松面과安州郡一部에서 벌서死亡者만도七名

【肅川】 평원군 동송면(平原郡東松面)을중심으로 안주군(安州郡)일부에는 괴민성뇌막염(嗜眠性腦膜炎) 환자가 십여일동안에 십오명이나 발생하엿는데 그중 칠명은 발병수일만에 사망하고 그외환자는 발광을하는등 정신에 이상도생겨 고민을하고잇서 방금 일반주민들은 불안중에싸여잇다한다

移轉費査定 不公平이暴露

【長津】 장진강수전용지 매수문제가 강제수용령을 적용하게까지 되여 회사대 관게주민간에는 극도에 알륵이 생겨세인의 주목을 끌고잇는바 요지옹모방면의 소식을드르면 수전사원으로서 한번식 가옥 등급조사와건평수량을 행한후 그가격을 결정하야 응치안은 건수만 추려 그가치 수용령을 적용한것인데 그중에는 뚝가튼 건물입도 물구코 한편은 을종으로되고 다른한편은 병종으로되여 가격의 오할의차가 잇슬뿐아니라 평수에잇서서도 막대한 차이가 잇다는데 그실례로 중남면사수리(中南面泗水里)유영순(劉永淳)의 가옥은 건평도 일평사합이 주러젓고 동일장소에 동일한건물로 동일시기에 건축되엿스나 다른 김○섭(金○燮)의 소유가옥은 을종으로되여 평당 오원인데 전긔유영순의 가옥은 병종에 속해 이원오십전으로 결정되엿슴으로 다시 수전사원을 차자 정당하게고처라고 요구하엿스나 이미 결정해노은것이므로 도에 제출한 서류관게도잇고 하야 다시고칠수업다해서 도지사에게 의견서까지 제출하고 도당국 조사원이 나오기를 기다려 이불평을 말하고자 하엿스나 도에서 실지조사차로 파견되엿다는 촉탁원도 회사측과 억개를가티하야 이미 완전한해결을 내고 수전사측 고문관이 된 인사들을 맛나 보앗다는말만 남기고 실지조사는 하지도안어 주민측 일부는 크게분개한다고한다

貨車上格鬪事件 六個月役言渡

【新義州】 귀보=지난달십이일화물화차우에서 밀수단과 안동세관리가 격투하다가 신의주역에 나리어 밀수단은 다중의 세력을 밋고 안동세관리에 폭행을 하얏다는 사건은 신의주경찰서에서 폭력행위취체위반으로 여에 취조가 끗나 공판에 회부되얏는바 지난十일 주모자라고 인정하는 다음의 세명에게 징역六개월의 판결언도를 하얏다한다

新義州動榮洞一六二
安東縣六道溝三條通 高義舍(三二)
同府田淵四四四 黃聖善(二○)
各懲役六個月 金鍾成(二二)

端川農組關係者 五名滿期出獄

【咸興】 소화팔년십월륙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삼년륙개월의 언도를 밧고이래 함흥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 단천농조(端川農組)사건관계자 오명이 지난오일로만긔가되여 륙일아츰 출옥하여 즉시 고향인단천(端川)으로 돌아갓는데 그들은 오래동안 옥중에서 고생하엿슴에도불구하고 모다 씩씩한 건강을일치안코 잇섯스며 출옥된사람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金衡珏(三六) 金鳳翼(三三) 崔台斌(二六) 崔斗健(二九) 許秉律(二四)

稻作被害多大 때안인長霖으로

【泗川】 경남사천지방은 때아닌비가 너무자저서 연료、식량(燃料、食糧)등 준비가업는 농민으로하여금 추석명절을 압두고여지업는타격을 줄뿐안이라 방금 도작(稻作)이 밤수긔에잇슴으로 그피해가 막대할것이라한다

人質되엿든李鼎洙君 五十日만에歸還

同僚運轉手들의救助로 人質代四百圓提供코

【北靑】 북청태생의 운전수리정수(李鼎洙)는 약한달반전에 혜산진장백부(惠山鎭長白府)이떠집에서 자다가 돌연다수의 무장한마적단에게 랍치(拉致)되야가서 이래소식이업든중 수십일전에 마적단으로부터 금륙백원만 가저오면 무사히석방한다는 통지를 바덧스나 원래리씨의집은 가난한살님이라 그런금액을 지불할힘이 업는처지임으로 이딱한 사정을본 친족들과동료운전수들이 푼푼전이모아 겨우현금사백원을 만드러 보내엿든바 지난구월이일에야 무사히석방되엿다한다

本報平壤支局主催 金剛 妙香 兩大名山探勝 出發日字를變更

【平壤】 본사평양지국에서는 십륙만 부민의 지도와 성원밋테서 금강산과 묘향산 탐승을하기로 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철도당국과 교섭중이든일할과 회비에대한 전부가 다소변경되여 다음과가티 즉금강산은 이십일일밤차로 묘향산은이십일새벽차로 출발케되엿다는데 전화로나 또는 직접지국까지와서 신청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하며 인원이 초과되고 부득이 참가를 사절하는경우도 잇는터이므로 가급적빨리 신청하여 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在奉記者團總會

【奉天】 창립한지 십여개월에 본보주필서춘(徐椿)씨를 초빙하여 경제강연회(經濟講演會)를 주최한이래 유야무야로 침묵상태를직켜오든당지 조선인 긔자단(記者團)에서는 위원장이하 단원들이 다수히 변동되고 따라서 금후상호간 긴밀한 련락을 취하야 긔자단으로서의 보도의 사명을 다하는한편 재만조선동포의 발전책을 강구할목적아래 지난구월사일 오후여덜시에 당지 경성관(京城館)에서 혁신 총회를 개최 한후 위원개선과 『재봉조선인 발전책 좌담회 주최의건』과 『시사(時事)주요문제 토의회개최의건』등을 토의한후동십시반경에 폐회하엿다는바 신임부서는 아래와 갓다한다

委員長李昶雨 庶務部長楊青山 調査部長玄以平 研究部長金興恩 委員金錫吉 崔春彬 鄭東式 韓海龍 吳文錫 金炳元 田鶴賢

問題의金福順 修道院에入院

【大邱】 한동안 대구지방의 화제거리로되여잇든 대구모부호의애첩 김복순(金福順)은 대구경찰서에서 약한주일 동안 취조를 밧다가 모학생과 하등 추태가 업슴이 판명되엿고 일반채무 관계는 동거인이 전부책임 지불하기로 결정되엿슴으로무사 방면되여 부내 모려관에서 루숙중이든바 지난 칠일오후네시차로 경성수도원 선생의소개를어더 일본수도원(修道院)에 입원코저 출발 하엿다한다

電氣問題를中心 緊張으로一貫!

九日에開催된平壤府會

【平壤】 십칠만평양부민의 중대관심처가되여잇는 평양부전문제를 중심으로 설치된 전긔조사위원회에서는 구일 오전열시사십분 부회본회의에 보고할 중간보고의 보고서심의와 화력발전소건설에 대한 계획의견을 청취한후 동일 오후한시부터 본회의석상에서 전긔문제가 크게론의되엿는데 개회벽두에 실칠만부민의 공적이되는 서선합동전긔회사의 중역인 횡전(橫田)의원의 회석을요구하는 의원이잇서 한바탕 긴장미를 보히다가 그대로 계속토의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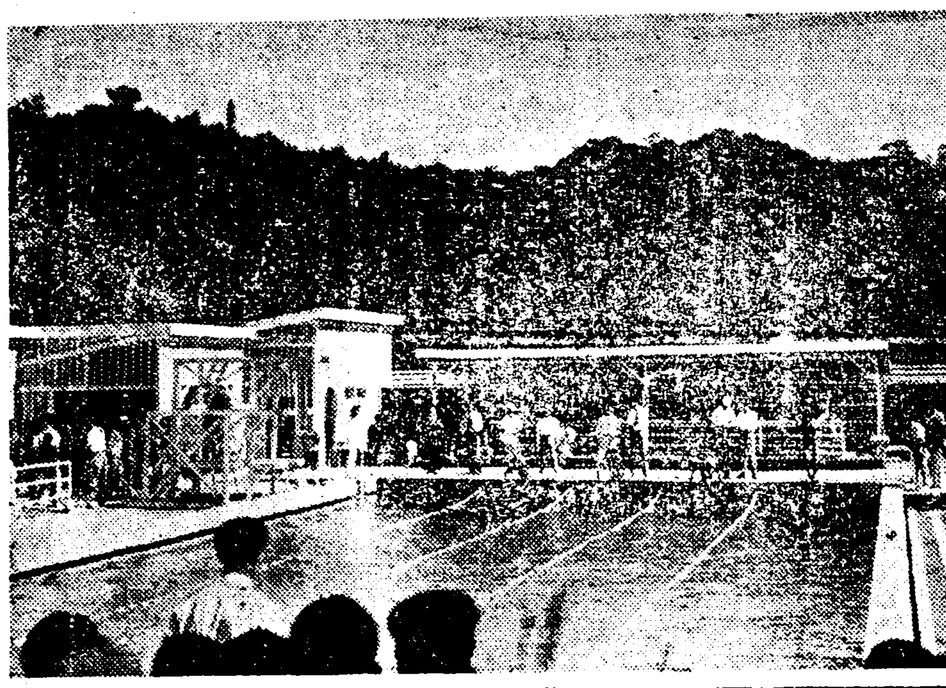
전긔 조사위원회 대표로 팔월삼일 리긔찬(李基燦) 내전(內田) 석외(石隈)등 삼씨가 상경하여 총독과 총감을 면회하고 평양부전문제에 대하야 의향을 듯기로 되여 전후 네번식이나 면회를 요구햇스나 밧부다는 핑게로 면회를 거절하고 체신국장으로 하여금 제는강 안이하나 통제는 안중에두고잇고 송전회사와의 직접매전문제는 끈난한뜻을표시하여 급기야 서선전긔회사에서 전과가티 수전하라는의사표시를하고 수전료감하문제에는 도모지 입을 열지안엇다

이때문에 상경위원들은 분개하고 돌아와는데 이에대하야최후결재권리를 가진총독으로 압질러 자긔의사를 표시하지안을것만은 정한사실이라하며 일소에 부치고말엇다

最後의決定案은 自家用火力發電

委員會는一般解散

평양부전문제가 금후 복잡화할것만은 사실인 모양이나부전사수를 결정한 금일에 잇서서 아모리 총독부당국에서 부전경영에 대한 방해를 한대도 부민은 어데까지나 일치단결하여 중간착취가 서선합동전긔를 단연 배격하고 회려지가 발전火力自家發電을하여서라도 긔어코 공영전긔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로 태도를 결정하는동시에 만난을 배제하고 금후맹진키로 이날의 평양부회석상에서 만장일치가결하는일방 금후실행방법은 부리사자에게일임하고 전긔위원회는 일단해산하기로하엿다한다



◇…開場한 平壤의 公設풀의全景

議長處事에憤慨 西部側議員辭職?

府尹不信任案提出도同時決議

綜合運動場問題後聞

【大邱】 대구종합운동장위치문제로 부의원안인 대명동(大明洞)파와 달성공원지지파가 대립되여 부회의석상에서 격전하얏는바 루표한결과 서부측인달성공원이 십오표이며 대명동이 십사표로써 대세는 서부로 결정되엿든바 서부측 루표중에 한표가 불분명한 관계로 의장이 무효긔권을 시키고 쌍방이동수가됨에 의장의 직권으로 결국부원안인 대명동으로 결정발표선언함에 서부측의원들은 총기립하야 의장횡포를 절규하는동시에 장내는 수습할수 업는수라장을 이루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서부측 의원은 즉석에서 퇴장하야 부내 명석요리점에서 회합하야 부윤불신임안(不信任案)을 제출하는동시에서부측 부의원은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야 서부찬성위원 십사명은 총사직을 하기로 마찻가결하고 금명간에 시긔를 보와제출한다는데 당일 집합한 서부측의원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裵炳烈 蘇鎭武 林尙助 尹炳殷 島田金四郎 逵捨藏 內山寶三郎 板本俊資 外四名

安東共黨事件 關係者二名出所

【大邱】 삼년전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안동공산단(安東共產團)과 봉화적색농민재건위원회(奉化赤色農民再建委員會)사건으로 청년십팔명중 십명이 체형을 밧고 복역중 지난칠일 오전십시경에 대구형무소에서 다음의 두청년은 만긔출옥하야 각각고향으로 도라갓다는바 몸은 여전이건강하다하며 남어지관게자도 근일중으로 수명은출옥하리라한다

奉化郡乃城面都村里 李斗春(三?)
安東郡禮安面川前里 李斗榮(二?)

地方人事

▲柳時煥氏(前慶山郡守) 九月六日 安東郡轉勤赴任
▲崔秉翰氏(前安東郡守) 九月七日 尙州轉勤赴任
▲閔啓東氏(扶餘郡世道公普校長)總督府專賣局禮山出張所轉任人事次本報扶餘支局來訪
▲金弘軾氏(郭山예수敎會牧師)新任人事次 本報郭山支局來訪
▲吉龍鎭氏(郭山普校訓導)新義州第一普校榮轉人事次 本報郭山支局來訪
▲高基哲氏(平北道公普校訓導)車輦館公普校赴任人事次本報車輦館支局來訪

關東個人庭球戰 本報大浦支局後援

【大浦】 강원도대포항운동후구락부에서는 전관동개인정구대회를 본보대포지국후원으로 좌긔시일장소에서 개최한다는데 다수 참가를 희망한다고한다

一、時日 九月十五日(日曜日)
一、場所 大浦公立普通學校庭
一、申込場所 本報大浦支局
一、參加費 一組五十錢
一、賞品 優勝旗 其他附屬

大邱 讀者慰安 舞踊과映畫의밤

▲時日 九月十二日(秋夕日)晝夜二回
▲場所 於大邱公會堂
(場所整頓費十錢徵收)
◇主催 朝鮮日報社大邱支局

그女子의一生 (205)

回光篇 春園 作 夕影 畫

금봉은 마음의 등살에 견딜수가 업섯다。 이러케 괴롭게 구는 일이 업더니 오늘따라 웬일인고、하엿다。 나만 이런가。 여긔 안진사람들이다 나와 마찬가진가。

인제부터 저 만수향이 다탈때까지는 마음을 꼭 붓들어서 날치지못하게하리라、하고 금봉은 치맛자락으로 무릅과 발을 잘 가리우고 몸을 똑 바로하고 안젓다。

한참동안 금봉의 마음은자리를잡은것갓닷스나또 어느덧에 고삐를 끈허가지고 애오개아버지의 집으로 달아낫다。 낫살을 찌푸린 아버지、앙철대는 어머니 떼만쓰는 바보 동생、해악하는 김서방과 어멈。 마당에는 머리푼 귀신、팔 부러진 귀신 목떨어진 귀신、벌거벗은 귀신들이소리를 지르고 날뛰는양이 보엿다。 박게서는 유황냄새가 나오고 안ㅅ방에서는 퍼런 불ㅅ길 아버지가 안젓는 사랑에서는벌건불ㅅ길이 날름거리고 웃케가 잇는 아랫방에서는 검푸른불ㅅ길이나왓다。 눈는 냄새、타는냄새 튀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 애오개ㅅ집에 부튼 불은 왼 장안에 솟어닷다。 사람들의 아우성、귀신들의 날칙、숨이 턱 막히는 냄새。 초록장문홍장 두른 인사동 집이 나온다。 남치마 입은 제 모양이 대청에서 어른거린다。 금봉은 우홍을벗고 머리를 감는다。 머리카락들이 모도 독사뱀이 되어서 머리를 물고 꿈틀거린다。 머리는 사람이오 가슴부터 아레는 도야지모양인 손명규가 입을 버리고 뎀베어 금봉의 젓가슴을 물어뜻는다。 광진이가 와서 손명규를 떼밀친다。

『돈 주어、돈 주어』

하고 명규가 광진에게 대든다。

『엣다』

하고 광진이가 지전뭉텡이로 명규의 면상을 때린다。 명규는 면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지전뭉텡이를 집어서 입에 틀어막는다。 병원이 나온다。 숙희의 병실이다。 숙희의 이불 속에서 피무든 어린아이가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더니 그것이 변하야 조병겁이 되엇다가 조병겁이 이 목덜미에 그 피무든 아이가 매달리고 숙희는 전신에피투성이가 되어서 행결로달아난다。 임학재의 집이다。 화재와 영자가 한 자리에서 자고 잇다。 금봉이가 영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드러눕는다。 방안에는 거미 그르마와 지네가 섯젼다。 금봉이가 학재를 안으며

『나는 정말 임선생을 사랑해요』

하고 술 때에 심상태가 달겨들어 임학재를 떼어밀어노코 금봉을 껴안는다。 금봉은 심상태의 면상을 할퀴고 눈깔을 뽑아가지고 달아난다。 금방 금봉은 거지노파가 되엇다。 허리가 아프고 눈은 안 보엿다。

『옹』

하고 금봉은 무서운 꿈에서 깨라는드시 머리를 흔들엇다。 눈을 크게 떳다。

이 모양으로 세시간 공부가 끗나고 종이 당땅 울 때에 사람들은 일어나 합장하엿다。 금봉은 노장이 자는 방과 등을 마조대는 구석방 하나를 주어서 거긔서 자라고 하엿다。

등잔에는 [illegible] 만한 불이 까물거린다。 우중중한 방 멧 천년이나 묵은듯한 도배와장판。

고요한 밤 고요한 방에 금봉은 목침을 베고모으로 들어누엇다。 일생에 처음 베는 목침이라 머리가 으스러지는것갓터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엿다。 몸과 마음은 다 가티 피곤하엿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어듸서 뚝뚝 하는것도 갓고 스르 스스륵 뱀 기는것이 기어오는것 갓기도 하엿다。 눈을 뜨면 반자와 벽에 여러가지물상이 보이는것 갓다。 중도 보이고 떼거머리 총각도 보이고、희미한녕선이 이러한 환영을극지어내거니 하면서도 도모지 무시할수가 업섯다。 잇다금 여러십명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일제히 염불을 하는것도 갓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아마 수풀에 지나가는바람 소리인 모양이엇다。 또 어떤때에는 우우하고 수천명 군사가 납함을 하는것도 갓다。 그것은 바람소결 따라서 들려오는 큰 개천의 물ㅅ소리인 모양이엇다。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하고 금봉은 스스로 마음을 굿게먹으려하엿다。

남자의어려운고개 ―四十살전후에―

경계할신체의변조

상기 현거증 두통 협압항진 귀울고 견비통 변비 성욕감퇴

무서운 뇌일혈·중풍증의전조

四十살전후부터 두통、두중、상기、현기、귀울고、견비통、숙차、고、눈찟칠하고、불민증、변비의 증상이나타나고더하면성요쇠퇴를 늣기고혀가구더지고、손발이 저리고 불수증이나서 고통함분은 미구에 무서운 뇌일혈중풍에걸일전조다。

이원인은 젊엇슬때의 술담배의 독、몸조심안한 여독이몰으는새에 혈액에섞기고、혹은 혈액의 정화기관인 신장과 취장의장해에의하야

혈액이탁하야지고 끈적끈적하야저서 순환이 납버지고 동맥이 경화되며 혈압이 놉허지고 四十살전후가되면 돌연 뇌일혈에걸녀서 불행하게되고、혹은 중풍에 걸여서 반신불수 언어불통에빠짐으로 한참일할때집안에 큰 주초를 일코 가족이아조못살게되는일이대단만타。

이예방과치료

의방법으로서는 단지뇌병약과성욕공진제혹은 혈압강하제를 쓸뿐으로서는그리쉽게근치가안됨으로 아무리하여도 병의 원인이되야잇는더러운의를 정화하야서 근본부터 치료하도록하지안으면 안된다。

그에는 파리잡는약의 이마즈(今津)리화박사완성한 리기신「이마즈」를먹으면 그만이다。 본제는 세포활동소(호르몬)을주제로하고、그효과를 배가하는비타민B를 풍부히 함유한 우수한강뇌강정제로 동시에중풍、고혈압의 종합적치료제다。 본제는 몬저 위와장을튼튼히하야서 식욕을욿니고 또대소변을잘나오게하야 병독소를배설하야신장과취장의장해를제거하며、탁한

혈액을정화하고 동맥경화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청징한피가 혈관속을 철철흘너 다님으로 전기의 불쾌한증상이 조위지고 혈압을 적게하야서 뇌일혈을 미연에방지하고 허구픈것과 손발이저리고、몸못쓰는것을 조케하야 중풍을치료한다。

동시에 본제의귀중한 호르몬의 성분은 성욕의감퇴를 회복하고 정력을 왕성하게하야서 조루와로쇠를예방하고 늘청년과가튼원기를가지게된다。

약취와숙취에 리기신을 술자리에서 먹어두면 절코악취와숙취를 안하나니다。 꼭시험하여보시오。

늘 머리 납부고 기분이 나지안흐며 성욕이 적어지는분혈압이 놉허지고 뇌일혈의 위험잇는분、중풍으로 약효가 업서 고통하는분은 지금곳리기신을먹어서 빨이곳치십시요。

전국약점에잇슴。 二〇〇정一圓五〇、五〇〇정三圓五〇、一〇〇〇六圓五〇 大阪市大仁本町三今津化學硏究所에(朝鮮日報)이름을써서보내면 설명서를그저드리다

협압이 나리고 뇌일혈의 위험이 해소되야 생명보험에 가입된기쁨

(前略) 소생이작년여름에 보험회사의사에게진찰을 바든결과 혈압二二〇미리나잇서 뇌일혈의 증조잇다고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엿다。 빨이귀식의리기신을 먹엇더니 대변도잘나오고 머리도가벼게되고 물쾌한귀운것과 저리고 심장의압박감은 어느새이저바리고성욕쇠되도회복하며 협압一三五미리까지 내려갓슴으로 다시보험회사 의사의진단을바덧더니 뇌일혈의위험이 해소되엿다하면서 보험가입을 허락하여줌으로 참으로놀냅고 미듬기뻐습니다(後略) 大阪市・小■三郞

頭痛이잘낫는名藥

ノーシン 노ー신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끌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호릿호릿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마일頭痛으로 머리를보는때가게시거든잇지마시고노ー신을복용하야 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것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지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에든지잇습니다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와자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登錄商標 帽子 印잇는 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卄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東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OKEH
―오늘에流行하는―
新民謠 앞강물흘러〈
獨唱 李銀波
오케ー레코ード (一七九六番)

九月九日부터特別公開 特選上映 特十錢均一
初秋映畵陣에보내는絶對大衆푸로
大都映畵超特作現代映畵 原作脚色監督……丘虹二
恨嘆의봄 (嘆きの春)
琴糸路主演映畵 中野健治 橘喜久子 東大寺一郞 春水照子 共演
파라마운트社超弩級的特作映畵 스토리는展開되어간다 『네개의나래』를에워싼勇壯華麗한 人跡絶域의砂漠、灼熱의戰野…
리차ー드아ー렌 포ー베 크라이브브룩 共演
四枚의날개
大都超特作時代映畵 待望의名篇第二篇 原作吉岡貞明 阿部九州男 監督大伴龍三
遠山龍之介 木下雙葉 相良傳三郞 東龍子 共演
名金女難江戸染の卷
後井町 大正館 本局

九月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秋期第三週の豪華陣―
유나이데트超大作日本版 로란드V、리監督
十九世紀大衆文學의精華 뒤마原作
巖窟王 (一名海王軍)
英國劇團의第一人者로바ー드 또낫…主演 에릿사란데이助演
◆유나이데트特作日本版
스페사、또레시 짝크、오ー키ー 主演
電話新撰組
◆日本發聲映畵社特作 水谷八重子主演
朝日世界ニュース 六卷
―(次週特別公開)―
江戸너마을、陶醉夢、뿌라오빛 笑大勝利
全鮮第一 映畵殿堂 團成社 電光九五

九月七日낫부터 每日三回興行 午正十二時 午後三時半 午後八時
金剛키네마第六回大作品巨豪版 ―封切週間―
原作脚色 李明雨 監督 安鍾和 撮影 李明雨
主演 李源鎔 申一仙 朴慶子
助演 朴濟行 李慶善 沈影 金寅圭 柳新花 全順子 李銀
學生映畵 銀河에흐르는情熱
朝鮮初有의學生映畵로映畵史上에最高王座를占據한帝王篇! 學生生活을描寫한名畵!
콜럼비아社超特日本版 가니ー발 主演 사리、아이라스
仁寺洞 電光二三六 朝鮮劇場

連日滿員御禮 激讚好評裡に常盤十一日まで續映
三回興行 時間割 第一回十一時三十分 第二回三時十五分 第三回六時五十分
一、松竹發聲ニュース
二、蒲田超特作花嫁シリーズ オール・トーキー 眼と耳の新聞 北村小松 原作脚色 野村浩將 監督 田中絹代 小林十九二 主演
三、下加茂本年度超大作 オール・トーキー 夢うつつ 大阪、東京朝日新聞連載小說 三上於菟吉原作 伊藤大輔脚色 衣笠貞之助監督 林長二郎 一人三役 主演 雪之丞變化
洋劇專門 浪花館

イカリ ソース
景品附特賣
이가리소ー스大瓶 一瓶사실때마다
鮮內에信用만흔 제일조흔비누
켄부비누 一個式
빠짐업시贈呈

經濟解說

"米價의 焦點" 新穀出廻期前後 (1)

申泰翊

요새에도 米價는 騰貴하야 퇴도 세이다。政府로부터 米價의 騰勢를 눌느라고 이미 買換百萬石과 賣却五十萬石을 決定하엿스나 實際에 何等의 緩和策가 되지못하고 依然 米價는 騰勢不穩의 强調가 變함이 업다。그러나 所謂端境期라고 하는 九月과 十月밧게 못남어잇스며 또 그前後로부터 新穀의出廻가 展開케될것을 압둔 이때임으로 今後米價의 趨向은 더욱 一般의 注目을 끄흔다。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의 米價强調가 어느때까지 繼續케될가 即端境期로써 끗을내이고 新穀出廻期로부터 反動的市勢가 나타나게될가 그러치안코 一向强調가 不變케될가함이 오늘에잇서서 米價前途에 노힌 焦點이다。그래서 이에 對한 今後米穀事情의 如何를 考察할 必要가 잇다。

×

먼저 오늘에 米價가 굳세잇슴을 觀察하야 나라내이고잇슴에는 大體두가지의 事情을 들게된다。

(一) 이미 前次말하여온바와 가티 米穀需給關係에 端境의 持越高이 一千萬石에 讓할 豫想이면서도 그中 八百餘萬石이 政府米이라는 點에잇서서 所謂糧米枯渴 或은 在米乏等 需給의 不均衡으로해서 米價高가 繼續되여온것이 그 하나이다。

(二) 그러나 需給不均衡은 이미 남은 材料이다 왜그러냐고 하면 이미 그 需給不均衡을 材料로 삼어오지 오래일뿐만 아니라 端境期도 五十日가량 남어잇서 不遠에 新穀出廻가 될것인만큼 需給하야 이것을 材料로 米價의 騰勢를 걱정에는 힘이 적게되것으로 볼수잇다 그러치만 米價의 騰勢는 顯著한 緩和가 업는것이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것은 所謂 仕手戰이라는것을 理由로 들수밧게업다 그러면 이 仕手戰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淸算市場에서 팔고 사는 正米市場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의 對時的 賣買으로 米價를 노픈값으로擱據하는바가 오늘에잇서그큰것으로생각한다

×

오늘의 米價高는 남은 材料인 그 需給不均衡에다가 仕手戰이란 賣買이 添加하야 今年米作豫想(平年作)을 無視하야 그 不拘하고 高價가 繼續하야 그 消費者의 生活上 苦痛이 매우 甚大케되고잇다그런데이米價高를 緩和케 함에 對하야 政府로서는 어떠한 米價操作을 하고잇는가 하면 이것은 以上에서 말한바와 가티 最近에잇서는 買換百萬石, 拂下五十萬石의 程度로 民間在米乏을 緩和케 하라는것에 不過하다。무슨 까닭으로 이때에 政府는 오직 深刻한 五十萬石의賣却, 百萬石의 買換으로 兩者의 方法을 取하엿는가 이에잇서는 다음과가튼 政府로서의 理由가 잇다 即

▲米價高가 目前에잇서 이것이 消費者生活을 威脅한다는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政府所持米中 相當한 數量을 賣却하여만될일이다 그러나 다만 目前에만 置重하고 이것이 將來에 어떠한 結果를 매질는지를 생각지안코 賣却할수는업다 그래서 政府는 오늘의米價高를 눌느면서 또한便으로는 將來에對한 端境期如何에 重視치안홀수가 업게된다 이런 까닭으로 賣却과 買換을 하여서 뒤를 두게되는 兩樣의 方法을 取케된것이다

×

이兩樣方法이 어떠한程度에 必要케되는가 하면 即 만약 지금에 잇서 米賣却만으로써 米價高를 눌넛다가 만약 今年米作이 豊年으로되면 그新穀期에잇서 어떠케 할道理가 업다 即最低公定價까지 안떨어저가지고는 買入치못하게되다 그러나 買換으로 하면 新穀出廻에 잇서서 買入케 될수가 잇다. 다시 만약 今年米作이 凶年의 境遇에는 買換으로 이곳에 잇다 그러면 이로써 과 賣却을 併行하는 理由가 하야 所謂 兩樣方法의 買換가 오늘에 米價의 騰勢에 對止할수가 잇다 그래서 政府가 그대로 買入을 中止할수가 잇다 그대로 買入을 엿다가도 新穀出廻期에서 이 同期의米高價를 保持게할이可 能케될가 이것이 오늘에잇서 만은疑問을 갓게하며 떨어서 이에對한 事情의 考察이 緊要케되다 (續)

大資本積極進出로 朝鮮內會社數激增

八月末現在四千三百六十三社 公稱資本九億餘圓

朝鮮內事業係는 朝鮮人側의 勃興은依然寥寥狀態이나 日本內地大資本閥의 朝鮮內積極進出이 加速度로 되어가는마큼 大資本會社가 雨後竹筍가티생기고 이에中小會社까지 續出하야 表面數字에 나타난會社數로는 可驚할增加를 示하야 別題京城商議調査到八月末現在의 鮮內會社數는 四千三百六十三社、公稱資本金 九億一百八十一萬九千圓、拂込資本金 五千七百六十七萬七千圓의 巨額을示하엿다。

比前年同期 五百四十社增

【十日京城商議調査發表】朝鮮內八月中 會社異動狀況은 新設六十七社, 公稱資本金二千九百九十三萬四千圓, 拂込八百四十二萬九千圓, 增資十二社, 公稱資本金百卅三萬圓, 拂込資本金百卅三萬圓, 拂込四社卅一萬圓, 減資三社, 公稱資本金五十八萬七千圓, 拂込資本金十三萬七千圓, 解散卅四社, 公稱 資本金 三百九十六萬二千圓 拂込資本金二百九十八萬圓으로 結局 月末現在는 如左하엿다 (單位千圓)

種別	社數	公稱資本	拂込資本
株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四,三六三	[illegible]	[illegible]

前月末보다 三十三社 公稱資本金 二千六百六十一萬五千圓拂込資本金 六百七十五萬二千圓이各各 增加하얏고 更히 前年同期에比較하면 五百四十社 公稱資本金 一億四千九百一萬八千圓, 拂込資本金 一億七千一萬二千圓의 激增 이엇다 當月中의主要新設會社는 大陽製粉會社 株式會社吉川商店 朝鮮不動產會社 朝鮮電力會社 多獅島鐵道等이엇다

犧牲되는朝鮮產業

外地서의利潤을外地서活用하자

拓務省이是正方針

拓務省에서는 今回外地產業會社의 利潤이 곳 日本內地資本의 손에 還元하야 자칫하면 外地는 日本內地에 犧牲되는 傾向이잇合에對하야 이에 出馬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爲先 鑛業의 製糖、樺太의 製紙等에 具體行動을 取하리라고 傳하바이에 對하야 總督府當局에서도 『朝鮮에의 投資東會社에 對하야 去年以來 그事業本據의 朝鮮內移管을 慫慂하야 實現한것도 右方針에서 나온것인데 拓務省에서도 同問題에 積極的으로 關心을 가지게 된것은 外地로서는조흔일이다』하고 贊成하엿다

煉炭合同

大同脫退

豫定대로進行

煉炭合同은 旣報한바와가티 九日의 第一次協議會에 合同根本方針을 決定하고 新選出의 創立委員四氏의 손으로 드듸어 工場評價를 開始하야 千先 十三日 京城의 昭和, 蓬萊, 宮尾의 三工場, 繼續하야 十四日은 平壤 龍登을 所有하는 片倉의 買收工場의 評價를 開始할 豫定인바 合同交涉中 七工場參加豫定은 갑재기 大同煉炭이 脫退하야 六工場으로 되엇다 大同은 當初 合倂의 急先鋒으로 民間業者로서 總督府에 合同與望書를 提出한 一員이엇스나 最近 談이 進行되어 合同에서 脫退하야 有利한 片倉에 賣却하기로 內定하얏기때문이다 大同의 脫退는 大局에 影響이 업고 右工場評價終了後 十月上旬에 新會社를 創立할 豫定이다

朝鮮米運賃新協定內容

阪仁標準六十圓으로

朝鮮米 新積載協定은 十四、五日頃 阪神受荷主代表가 入京하야 朝鮮內出荷主와 協商한뒤 穀物大會까지에는 朝郵、商船兩社間에 新契約의 正式成立을 보게되엇는바 新運賃은 當分間現在 丸仁穀協과 阪神荷主와의盟外船과 協定하고잇는 實行運賃即 阪仁標準 一百石 六十圓이고 리베ー트는 五圓 (日本內地朝鮮荷主 平等으로 分配) 으로내定하얏다

朝鮮商船의 朝鮮米積取協定 에 對하야 尼崎、辰馬、中村組、澤山、飯野(大同海運、東光海運을包含)의 五船會社도 新協定에參加하기로 內定하얏스나 其他의船會社는 荷主側에서 希望치안홈으로 參加는困難하다고 觀測되고잇다 그리고 此等七社는 荷主側의希望에 依하야 配船積取의 圓滑을 圖키爲하야 新團體를 組織하기로되어잇다 그러나 豫計算

兩繭市場

京城 大邱 兩繭市場

在庫九萬貫

時價約二十八萬圓

京城、大邱兩自由繭市場의 在庫繭은 槪算乾繭換算二萬貫이며 生繭으로 換算하야 約九萬貫時價 約二十八萬圓인데 各所持側이高價豫想과 製絲側의 原料不足을 豫想하야 賣惜함으로 賣買는全然업다고 한다

人絹染色의 數量을協定

實際問題로困難狀態

日本內地朝鮮一元統制問題에 對하야 日本內地人絹染色加工組合委員이 不日中에 朝鮮에와 染色費의 差異와 配定問題에 對하야 協議하기로 되엇는바 日本內地 染色加工組合에서는 日本內地 朝鮮間의 加工費 (廣巾) 로 트一로 朝鮮內二錢 日本內地四厘)의協調及 加工配定을 要求하야 朝鮮側이 應諾치안는境遇에는 日本內地 染色組合의손으로 朝鮮內에 工場을 設置하여다는 强硬한 主張을 할모양으로 推移는 重視되고잇다

朝鮮當業者側에서는 應急的으로 朝鮮機業協會內에 人絹加工部를 新設하고 九工場(朝鮮織物、朝鮮紡織、大昌織物、正和工業、朝鮮染色整理、徐山織物、朝鮮絹織東洋染色)의 參加協調하야 自制統制를 行함으로 其調로 交涉할 豫定인데 日本內地側과의 加工費協調는 別問題이고 數量配定은 實際問題로 困難하다 따라서 人絹加工의 一元統制問題는 朝鮮內가 日本內地의 威脅을 박게되는것으로 그推移는 當局에서도 憂慮하고잇다

秋夕景氣打診!

米價高에 오히려 打擊밧는 農村

옷감이싸도購買力不增

秋夕名節을 압두도 商街景氣를 打診하면 米價高로 農家가 潤澤할듯하나 그實은 이미 所持米를 一粒도 남기지 안코 大部分의 農家는 팔엇스므로 지금은 糧米不足에다가 米價高騰로 食糧에 困窮을 當하고 잇기 때문에 名節비음인 衣服次(옷감)가 昨年보다 떠러젓스나 팔니는것은 例年에 比하야 別로 好況이라할수업고 大體로 增減업는 趨勢이라하며 商街도 秋夕決濟가 別로 波瀾업슬지나 潤澤味는업슬모양이라 今年九月十日과 昨年九月十日과를 比較하면如左하다。

		今年九月十日	昨年九月十日	比較
丸仁三等米	一石	三一七〇錢	二四〇五錢	七六五錢高
仁川改良租	一斤	九錢一厘	六錢八厘	二錢三厘高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二三〇〇錢	一八〇〇錢	五〇〇高
京城綿布 三A		一七〇〇錢	一八三〇〇錢	一三〇〇錢低
太極星		一七〇〇〇錢	一八三〇〇錢	一三〇〇錢低

米棉收穫豫想

千百五十萬俵

【紐育九日發商通】米國農務省發表에依하면 九月一日調査의新棉收穫豫想 一一、四八九、〇〇〇俵 作況 六割四分五厘 豫想은 다음과갓다 腐棄反別割合 一分八厘 그러고 國務局은 九月一日의第三回新棉繰上高를 百十三萬三千俵로 發表하엿다고한다

▲卅萬餘俵減 【京城九日發聯合】米棉第一回收穫豫想高는 一千百四十八萬九千俵로 發表되야 前回로부터 三十萬九千俵減收、豫想外의 少量을 報하엿는데 市場에는 큰反響이업고顯著한 買物도 업섯다

公定高價米拂下

◇…累計十一萬石

【東京電話商通】公定高價에依한 米買受申請은 七日一萬三千九百十四石八斗로 累計十一萬四百三十三石二斗에 達하엿다

上旬對外貿易

出超三千四百萬圓

【遞通東京電話】大藏省發表에依하면 九月上旬對外貿易槪算調查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八一、三七六
輸入	四六、七二九
合計	一二八、一〇五
出超	三四、六四七
一月以後入超累計	一〇五、五九〇

商銀行規肅正

重役支店巡廻訓戒

商銀 不祥事件의 續發로 行規肅正、信用恢復의 必要를 認하고 朴頭取는 湖南線을비롯하야 目下載寧、沙里院 方面을 井上審査課長은 會寧、淸津의 北鮮方面을 巡廻、十一、二日頃 모두 歸京할터이며 그 뒤를잇대여 堀專務는 西朝鮮方面에 出張하야 各支店을 巡訪訓戒肅正에 힘쓸터이라고

米日爲替少高

【京城九日發聯合】九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하면 賣二十九弗七仙으로 六仙高 買二十九弗五仙으로六仙高

▲東京爲替(九月十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十六分一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同)

	賣	買
對米	二十八弗十六分十五	二十九弗十六分一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八分一

今日財界 (十日)

◆米	今日止	前日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鮮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一斤	[illegible]	[illegible]

◆中市金銀價		
金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株	今日止	前日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現物	[illegible]	[illegible]

朱乙林業區

新年度採木

大體十五万石內外

東拓朱乙林業第四年度採木方針은 目下 新年度拂下材의 伐木調查를 營林署員과 東拓林業課에서 調查中임으로 今月中에 決定될터인데 大體十五萬石內外로觀測된다고한다

八月中鹽生產

【專賣局發表】八月中鹽生產高는 合計二千八百九十五萬四千瓩으로 이것을 各管內別로 보면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瓩)

▲朱安 一二、〇九六 ▲廣梁灣 一三、八九九 ▲南市二、九九五

▲貯銀預金積高=貯銀八月末現在預金積金現在高는 三千八百二十七萬二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五十二萬七千圓 前期末에 比하야 十九萬二千圓의 各增加이엇다고

經濟界消息

○朝鮮簡保金支拂=朝鮮簡易生命保險의 八月中保險金 支拂總件數는 一千一百二十三件 金額十二萬五千四百六十一圓二十九錢이라고

商況 (十日)

米式 開店休商 不變

前場保合 市勢는 依然閑散保合이엇스니 即昨夜引에比하야 東新은 十錢低인 百四十一圓五十錢 日產二十錢低인 七十六圓四十錢 大新二十錢低인 八十六圓四十錢에 各々引되고 朝新二十五圓六十錢 帝人百二十二圓六十錢 日魯五十六圓三十錢 各一本이엇다

後場不變 後場은 東新百四十一圓八十錢日產七十六圓五十錢朝新二十五圓 六十錢에少聚寄後依然 閑散裡刻으로 大引

貿易好調無望

雙方에無戰志

今朝入電은 米日爲替二十九弗○五仙으로少高, 스目四十六弗八分七, 米棉高로 綿絲先限 百八十八圓五十錢으로 緩慢步調이며 遞相後任問題도 望月氏로 決定될것가타 政局安定氣味이며 上旬貿易은 三千四百六十四萬圓의 大出超가 繼續되는 好況이엇스나 市勢는 何等의 感應性이업시 伊에問題形勢觀望으로 雙方에 無戰意이며 閑散保合이 繼續될뿐이다

日前失望市勢?

伊에問題歸結待

지금에잇서 무엇보다도 큰材料로 取扱되것은 伊에「開戰이엿다 그런데 이紛爭問題가 聯盟에 걸녀잇는채로 언제나 끗이날지 漠然하야 開戰, 和平이 兩端間 闡明되지안코 질질걸고만잇슴으로 仕手로서도 이것때문에 마음대로 사지도못하고 팔지도못하고잇다 開戰이라면 一擧暴騰을 밋는터

朝取業績良好

期米活躍으로

朝取當期業績은 證券部取引高가 前期 一日平均 取引高에 比하야 約二千枚의 減少를 示하야不振狀態이나 米豆部取引高는 九日과 如함은 二十萬三千石으로 今年度新記錄을 示現하야 平均取引高가 七萬一千石餘이되어 前期에 比하야 約倍加하얏슴으로後半期의 成績如何에도 依하겟스

期米 小幅高下 揉合

前場小戾 昨後場 阪地二十九圓七十四錢止와共히 二十七圓四十四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二十九圓七十二錢인 二十七圓四十七錢인 二丁低落을 摘하고 二十七圓四十七錢인 反히三丁高로場를始한後 阪地 三節八十六錢까지의 突返으로 五、六錢에서 採合하다가 結局 八十三錢에 止場을 廣하야 二節五十八錢으로 五十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更軟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五錢에 五丁高로 始場後三節三十一錢에 떠러지고 五節四十二錢에 更軟하야 別鬪가 止場하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 二百二十枚

▲東邦電力新 六八、〇〇 ▲東邦電力新 [illegible] ▲同新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에다파이 [illegible] ▲大島製鋼 [illegible] ▲人造肥料新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鹽水港新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遞通東京電話】動機待의氣迷로 變方이 氣乘薄이오閑散模樣이엿다

甲五分利	一〇四二〇
佛貨四分利	一八六八〇

市勢一張一弛

結局保合而已

昨日의 日本海로 逸走한 颱風은 그中心示度가 一時 七百二十二粍의 猛烈한 勢力으로 一般農家와 米界의 恐怖心을 일으키어 買氣를 助長하엿섯다。그러나 結局 그颱風은 朝鮮半島에 上陸하야 局部的으로 稻作의 被害가 업지안헛스나 그다지 甚하지안헛스며 日本內地는 北九州一部의 暴風雨가잇섯스나 그 被害가 輕微하야 去休日前에三十圓二十錢臺까지 昂騰하엿든 阪地市勢는 昨日二十九圓七十錢臺로 反落하고 當地는 二十八圓

市場六感

株

遞相後任도決定되어 政局에異變이나 그 好感도업고▲貿易이依然大出超繼續이나그것도相關안코▲綿絲反騰이나이것도모른체하고▲市勢는꼼짝달삭도안한다▲伊에開戰을꼭믿고 사던사람들이嫌症이날판이냐?▲秋高秋高를떠들더니 요사이閑散은 도리어夏枯期보다도더甚하니 딱한노릇▲이러케되고보니 十月大底說이 도머리를들고 나오다▲秋季

米

大淸潔을하고야말것이라고……一時 무서운威力을 보이면서 朝鮮半島에 上陸한颱風은 그勢力이 意外微弱하야 別로 稻作의被害도 업시 日本海로 脫走하고 말엇다▲今日의 現象으로 보아서는 二百二十日도 無事經過할것갓다▲二百十日 二十日이 모다 無難하게 되엿스니 買氣가 旺盛할것도 事實이나 二百十日以後의 冷害가 不少하엿고 昨今에入하야는 陰雲又는 降雨가 頻頻한모양이니 반드시 樂觀한다고도 할수업는걸▲그런데 先限만흔 天候일

如何로써 大勢를 左右한다하러니와 當限만흔 正米의事情如何로써 左右하게될모양▲目前의 現象으로 보아서는 賣方으로서의 渡米蒐集이 完了하지못한모양이니 此가 當限戰의 注目끄리 ▲一時一買偏傾이든 來客側은 昨日의 瓦落과 相俟하야 反히 賣便으로 偏傾 ▲果然 此에서 一段瓦落을 告할지 此가 注目處이나 四圍의事情으로 보아서는 當分滑落을 難問 ▲떠러진다 하더라도 本月下旬이 아니고는 어려울것이다무고불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四〇〇 ㊕一一〇〇〇 ㊧一〇〇 지一一〇〇

昨今實米消息

渡米蒐集注目

期인 此際에 非常한支障를 與하야 亦未知이라고 市中强弱論이 區區

政府로서의 正式發表가 無함에도不關하고 某消息通은 政府米五十萬石을 拂下할것으로 斷言하야 就中 五十萬石에는 昭和九年 產米도잇서 渡米用에供할수잇다고한다 果然 事實化하는때는 日本內地市場의 當限渡米調達이 容易하다고도 할수잇스나 아즉 未然前임으로 保證的實方針은 樹할수업스며 朝鮮內의事情으로보면 軟派의 幾分適備가업지안호나 그러나 아즉 不足을告할모양이다 罷者安城으로부터 新米二十叺의 廻着이잇섯스나 此는 極小數인만큼 渡米에 供할餘地가업고 昨今 大邱에서 団米八千叺의 賣買가成立되어 仁川으로 移送하게되엿스나 此는 精米用에 供하게될으로 渡米用과는 別問題 이라고 한다 何如間 當限戰의 今後는 一波瀾을免치못할 모양인데 兩派의 作戰計畫이 果然 何如할지 注目을끄는터이다。

各地正米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東京側 乘換地場正米側 小口側 利喰 ▲買方 地場株式側 朝鮮側

京城下逆

淸算低落이 나마適品薄으로 市況은 下落氣味인丸仁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

仁川閑散

期米低이나마 賣物薄으로 精米側은 原料買付難의 모양이고 產地에 買氣가잇스나 極度閑散搗面에陷한 ㊀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釜山堅調

秋夕을압두고 産地賣物이不少하며 定期軟調이나 賣方은强硬히高張하는一方必需側의 好價買進으로 오래간만에場面은活氣를帶하야 賣行一、一八四叺이잇고 氣配十錢繼伸인角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大邱一息

期米低로 一息商狀氣味이나 颱風被害의 買氣潛在로底堅한形勢를示하야 角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十四圓二十錢

群山保合

日本內地拂下의 好成績으로 依然買氣가보이지안코 定氣不勢로 雙方氣鈍하야 閑散搗面을 呈한 慶 三等三十一圓二十錢 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一等白米十四圓丁

木浦强含

賣需側의買氣潛在이나마 賣物薄으로 適品買가 困難한狀態이며 取引皆無이나强

南浦不變

依然所持의 賣惜을呈하야 不改하고 市況이 閑散 ㊉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五錢

含商狀을示한 丸木多叺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鮮 町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七十錢에서 二十七圓四十四錢까지의 瓦落을 告하더니 今朝에 入하야는 阪地의降雨로 다시買氣旅生하야 各地共히 一齊小高를示함에至하엿다 果然 今後의天候가 何如할는지 몰으나 連日 陰雲 又는 降雨를 繼續하는때는 殺穫

金融 十日

◆海外經濟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券	九日
[illegible]	[illegible]

◆日本銀行券	九日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illegible]

米穀 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illegible]

商品 十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illegible]

◆치카코期變	九日
[illegible]	[illegible]

◆鰯油沖價	
[illegible]	[illegible]

◆鰯搾粕沖價	
[illegible]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illegible]

株式 十日

◆朝取短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illegible]

期米 十日

◆朝取期米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illegible]

商品 十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海外砂糖	九日
[illegible]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 代金引換取扱 貴金屬 送料先金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